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明淑

20·30대 여성의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The analysis of skin condi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a study on their
attitudes toward skin care

2006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뷰티에스테틱專攻

李 恩 英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明淑

20·30대 여성의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The analysis of skin condi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a study on their
attitudes toward skin care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뷰티에스테틱專攻

李 恩 英

李恩英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年12月

심사 위원장 姜秀京 (인)

심사 위원 金桂淑 (인)

심사 위원 金明淑 (인)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배려와 가르침을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 명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허 순득 교수님, 심사를 맡아 하나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강 수정 교수님, 김 계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와준 선형이와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격려와 사랑을 나눈 여러 대학원 학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격려해주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평소 못 다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특히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늘 뒤에서 지켜봐 준 남편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딸 세은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 작은 결실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이 은 영 올림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피부유형, 피부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연령에 따른 피부상태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올바른 피부관리의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20대와 30대의 피부건강상태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피부관리태도, 화장품사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여성 중 31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5년 8월 16일부터 30일간 피부미용전문인을 통해 피부진단 및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피부유형에 있어서는 연령군간 통계학적 유의적인 차이로 20-24세는 지성피부가 30.3%, 25-29세는 복합성피부가 40.8%, 30-34세는 건성피부가 34.6%, 35-39세는 건성피부가 55.4%로 가장 많았다.

피부건강상태에서 예민 피부는 20-24세가 48.7%, 25-29세가 28.9%, 30-34세가 33.3%, 34-39세가 37.5%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탄력저하피부는 20-24세가 19.7%, 25-29세는 38.2%, 30-34세는 50.0%, 35-39세는 59.5%로 연령이 높은 군이 탄력저하피부가 많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이 낮은 20-24세에서도 탄력저하피부가 19.7%나 있었다.

여드름피부는 20-24세가 59.2%, 25-29세가 53.9%, 30-34세가 43.6%, 35-39세가 36.5%로 연령이 낮은 군이 여드름피부가 많이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드름피부 74.5%가 여드름 정도 1로서 20·30대의 여드름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 부위는 20-24세와 25-29세는 각각 이마부위가 30.9%와 27.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나타났고 30-34세와 35-39세는 입·턱 주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각각 38.5%와 40.4%로 나타났다.

색소침착피부는 20-24세가 47.4%, 25-29세는 48.7%, 30-34세는 61.5%, 35-39세는 68.9%로 연령이 높은 군이 색소침착이 많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색소침착 부위는 광대뼈 주변이 전

체 연령군의 64.4%로 색소침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였다. 색소침착 종류는 기미가 20-24세는 11.1%, 25-29세는 9.7%, 30-34세는 42.2%, 35-39세는 72.4%로 연령이 높은 군이 많이 나타났으며 주근깨는 20-24세가 58.3%, 25-29세가 41.9%, 30-34세가 20.7%, 35-39세가 23.1%로 연령이 낮은 군이 많이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20·30대의 피부건강상태와 생활습관과의 분석에서 예민 피부의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2.0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탄력저하피부의 경우, 연령상 30대가 20대보다 발생률이 약 2.0배 높고 자외선을 3시간 이상 받는 경우 3시간 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1.6배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여드름피부의 경우, 연령상 30대가 20대보다 발생률이 약 0.6배 낮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2.7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는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의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색소침착피부의 경우,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1.7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자외선을 3시간이상 받는 경우는 3시간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색소침착 발생률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연령이 높은 군이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의 매일 사용 비율이 높았다.

팩(마스크)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20-24세는 13.2%, 25-29세는 17.1%, 30-34세는 28.2%, 35-39세는 60.3%로 연령이 높은 군이 팩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딤 클렌징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20-24세는 27.6%, 25-29세는 28.9%, 30-34세는 42.3%, 35-39세는 59.5%로 연령이 높은 군이 팩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령별 피부 관리태도는 세안방법에서 미지근한 물 사용이 20-24세는 25.0%, 25-29세는 53.9%, 30-34세는 59.7%, 34-39세는 63.0%로 연령

이 높은 군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피부관리실 이용 빈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20·30대 전체 연령군 59.4%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20·30대는 피부 관리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30대 연령은 피부관리를 위해化粧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 연령군의 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20·30대의 피부유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유분과 수분함유량이 적어짐과 함께 지성피부보다 건성피부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피부건강상태에서는 예민 피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전체연령군의 36.8%를 차지해 각 연령층에 예민 피부가 상당 수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력저하피부는 연령이 높은 군이 탄력저하피부가 많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낮은 20대군인 20-24세가 19.7%, 25-29세가 38.2%로 탄력저하피부에 해당되었다,

여드름피부는 연령이 낮은 군이 여드름피부가 많았지만 30대 후반군에서도 36.5%에 달해 성인기 여드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습관과 피부건강상태의 관련성에서, 예민 피부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탄력저하피부는 자외선, 여드름피부는 흡연, 단음식, 색소침착피부는 단음식, 자외선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30대의化粧품사용에 있어서는 연령이 20대인 경우化粧수, 딥 클렌징, 팩(마스크)를 선호하며 30대인 경우는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피부유형과 건강상태	4
1) 피부유형	4
2) 피부건강상태	5
2. 피부분석방법	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1
1. 연구대상자	11
2. 연구방법	11
1)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11
2) 피부진단을 위한 조사	12
3. 자료분석 및 방법	13
4. 연구의 설계	14
IV. 연구결과	16
1. 대상자의 일반사항	16
2. 연령별 피부상태	18
3. 연령별 피부유형	20
4. 연령별 피부건강상태	21
5. 피부건강상태의 생활습관 결정요인	30
1) 예민상태와 생활습관	31
2) 탄력상태와 생활습관	32
3) 여드름상태와 생활습관	33

4) 색소침착상태와 생활습관	34
6.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	35
7. 연령별 피부관리태도	38
V. 고 찰	40
VI. 결론 및 제언	43
참고문헌	46
<부 록 1> 설문지	49
<부 록 2> 피부 진단 프로그램	55
ABSTRACT	60

표 목차

<표 1 > 여드름의 형태	7
<표 2 > Plewig & Kligman 방법에 의한 여드름 정도	7
<표 3 > 대상자의 일반사항	16
<표 4 > 연령별 피부상태	18
<표 5 > 연령별 피부유형	20
<표 6 > 연령별 예민상태	21
<표 7 > 연령별 탄력상태	22
<표 8 > 연령별 여드름상태	24
<표 9 > 연령별 색소침착상태	27
<표 10> 다변수 로지스틱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측정수준	30
<표 11>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예민피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31
<표 12>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탄력저하피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32
<표 13>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여드름피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33
<표 14>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색소침착피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34
<표 15>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	35
<표 16> 연령별 피부관리태도	38

그림 목차

<그림 1 > 연구의 틀1	14
<그림 2 > 연구의 틀2	15
<그림 3 > 연령별 피부유형	20
<그림 4 > 연령별 예민상태	21
<그림 5 > 연령별 탄력상태	22
<그림 6 > 연령별 여드름증상	25
<그림 7 > 연령별 여드름부위	26
<그림 8 > 연령별 여드름상태	26
<그림 9 > 연령별 색소침착부위	28
<그림 10> 연령별 색소침착종류	29
<그림 11> 연령별 색소침착상태	2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반 대중의 생활 태도와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문화의 발달과 비례해 미의 개념이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신체 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¹⁾.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고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이 다른 신체 부위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올바르게 쓰지 않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피부손상의 위험을 줄이고 피부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²⁾.

사람의 피부구조는 모두 동일하나 사람에 따라서 다른 피부유형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피부유형은 정상, 지성, 건성, 복합성, 민감성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피부유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되며 피부미용전문가가 확대경 등을 이용하여 관찰해야 정확한 피부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피부유형을 정확히 알고 피부미용과 피부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개인의 잘못된 피부 관리는 피부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피부유형을 정확히 알고 피부미용과 피부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한

1) 고혜정,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6, pp.3-4

2) 명은진, 20, 30대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1, pp.1-3

다. 사람은 25세가 넘으면 생리적으로도 피부는 노화되기 시작하는데 피부에는 각질층에 10-20%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의 수분보유 능력이 저하되고, 피지 분비량도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저하되어 피부의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게 된다. 또한, 30대에서는 결혼, 출산 및 육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피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미, 잡티 등의 발생 및 피부건조, 탄력저하, 주름 생성 등을 느끼게 된다³⁾.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라 생리적 요인으로 피부 노화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심리적 요인, 생활 요인, 잘못된 피부 관리태도, 화장품의 사용지식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도 많은 피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피부유형, 피부건강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피부상태의 차이점과 피부건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령에 따른 올바른 피부 관리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또한, 20대와 30대의 피부건강상태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피부관리태도, 화장품사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연령군별(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의 유분함유량, 수분보유량, 피부두께, 모공의 크기 등 피부유형을 조사하고 예민상태, 탄력상태, 여드름상태, 색소침착상태의 피부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대상자의 예민, 탄력, 여드름, 색소침착의 피부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대상자의 연령군별(20-24세, 25-29세, 30-34, 35-39세)의 화장품사용실태 및 피부 관리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3) 김신정·김은숙,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 간호학회지 27(2), 1997, p.2

4) 김병우, 향장품학, 유신문화사, 1998, p.45

2. 연구의 가설

본 연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군별(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피부유형과 피부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상자의 예민, 탄력, 여드름, 색소침착의 피부건강상태와 생활습관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자의 연령군별(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화장품사용실태 및 피부 관리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유형과 건강상태

1) 피부유형

피부관리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다. 피부유형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⁵⁾.

안면의 피부상태는 미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 및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⁶⁾. 각 피부의 유형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체의 건강, 호르몬의 분비, 내장기관 등의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 등 내적인 요소와 계절, 기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⁷⁾.

이러한 피부유형을 진단하고 피부유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즉, 피부조직상태, 피지분비상태, 피부보습상태, 혈액순환상태, 색소침착상태, 피부혈색, 모공상태, 피부탄력성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외관 등이다⁸⁾.

피부는 지문과 같이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유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형은 일반적으로 분류하자면 피부의 유분량과 수분량 즉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에 따라 정상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의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한다⁹⁾. 또한, 모공의 크기, 피부결의 상태, 피부두께, 피지분비상태를 피부 관리사가 직접 관찰하여 피부유형상태를 건성,

5) 양은순, 일반인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석사논문, 2002, p.11

6) 김수정, 여성의 피부형과 피부분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원대학원 석사논문, 2001, p.8

7) 최정숙, 광형심 외,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관리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3(1), 1997, pp.241-258

8) 강수경·고혜정, 에스텍 서비스 기관 이용 고객의 유형조사, 한국미용학회지8(2), 2002, pp.201-206

9)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p.61-62

중성, 지성피부로 구분하기도 하며¹⁰⁾ 대상자들의 피부유형을 우드램프와 확대경 및 촉진에 의해, 피부조직의 입자, 모공의 크기, 혈액순환, 피부의 색소침착, 여드름성 요소, 지방의 함유량, 보습량, 긴장감 및 탄력성, 보습 함유세포, 피부의 각질화, 에민성의 정도, 피부의 두께 등을 확인한 뒤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성피부, 중성피부, 건성피부, 복합성피부, 여드름피부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¹¹⁾.

2) 피부건강상태

(1) 예민 피부

예민 피부는 피부상태가 정상피부에 비해 조절기능 또는 면역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강하게 감지되어 반응을 나타내는 피부를 의미한다. 원인을 살펴보면, 피부조직의 각화과정이 정상보다 빨라 조기 박리되어 얇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게 된다는 유전적인 요인과 계절의 변화, 생리, 임신,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식습관, 호르몬제와 같은 의약품, 화장품등의 후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부위가 붉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경험이 잦고 예민 증상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있는 피부는 우선적으로 예민성 피부로 간주한다¹²⁾.

(2) 탄력저하피부

탄력이 부족한 피부형태의 원인은 2가지로 표피층에서 지방층까지 피부 수분함유량의 감소와 진피층 탄력섬유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눈 밑이 쳐지기 시작하여 주름이 생성되는 등의 연령과 관련성이 있으며, 연령과 상관없이 자외선과 풍부한 표정, 화를 잘 내는 개인적인 기질 등 환경적인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탄력저하는 주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체중감량을 하였을 때 피하지방은 줄어드나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는 쉽게 수축하지 않으므로 늘

10) 최은영, 건강증진모델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관리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8, p.10

11) 김정희·정원경, 여대생들의 피부유형에 따른 식이섭취 실태조사 및 혈장 생화학적 성분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4(1), 1999, pp.20-29

12) 김기연외, 피부관리학 I, 수문사, 1999, p.88

어나 있는 피부가 근육운동에 따라 잔주름을 형성하게 된다. 잔주름은 가족력의 영향을 받아, 잔주름이 빨리 생성되는 사람과 중년이 지나도 주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있다¹³⁾.

(3) 여드름피부

여드름은 피지선의 만성질환으로 피지분비가 많은 부위인 얼굴, 목, 가슴과 등(V형태)에 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질환이다.

여드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유전적 요소와 호르몬 또 후천적 요소로서 스트레스와 편식과 지방이 많은 음식물의 과다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과 지나치게 유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여드름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드름의 발생시기는 크게 3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 데 모체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영아기, 사춘기 때 생식선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주로 발생하는 사춘기, 또한, 20대 후반 또는 30대에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인 성인기가 있다. 뒤늦게 나는 여드름은 대부분 스트레스, 소화 장애, 식습관, 수면부족, 손으로 만지거나 함부로 짜기, 생리, 화장품, 의약품 등 후천적인 요인이 자극이 되어 발생한다.

여드름의 생성과정은 우선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극 받은 모낭 옆의 피지선이 점차 커지게 되어 피지 분비가 과다해진다. 이와 동시에 모공 입구의 각질층이 두꺼워져 모공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모낭 내에 피지가 쌓이고 모낭에 기생하던 세균이 번식하여 염증으로 발전하게 된다¹⁴⁾.

13) 김연진,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지식·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원 보건학과 석사논문, 2003, pp.16-19

14)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p.61-62

<표 1> 여드름의 형태¹⁵⁾

형태	특징
흰여드름 (White head)	각질층이 증식하여 모공을 막아 피지선에서 분비되어 피지가 내부에 덩어리져 좁쌀 모양의 볼록 올라온 상태
검은 여드름 (Black head)	피지가 공기 및 오염물과의 접촉으로 끝이 까맣게 변한 상태
구진(Pupule)	여드름 균으로 인해 염증이 일어난 상태
농포(Pustule)	염증이 악화되어 노랗게 굽은 상태
결절(Nodule)	구진과 농포형 여드름이 더욱 진행되어 진피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
낭포(Cyst)	진피 속에 자루모양의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된 상태로 흉터가 생길 수 있는 화농성 여드름

<표 2> Plewig & kligman 방법에 의한 여드름 정도¹⁶⁾

정도	특징
정도 1	얼굴의 반쪽에 1~10개 정도의 면포, 구진, 농포 발생, 불순한 피부
정도 2	얼굴의 반쪽에 11~20개 정도의 면포, 구진, 농포의 발생.
정도 3	얼굴의 반쪽에 21~30개의 면포, 구진, 농포의 발생.
정도 4	얼굴의 반쪽에 31개 이상의 면포, 구진, 농포 발생.

15) 김기갑 · 허순득,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피부관리학, 2005, p.42

16)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66

(4) 색소침착피부

멜라닌이 피부 내에 증가하거나 결핍되면 피부색에 변화가 생기며 그 요인으로는 유전, 자외선, 내분비장애, 스트레스, 물질적, 화학적 요인 등이 있다. 이 요인 중 자외선은 피부 내에 침투하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받아 멜라닌이 형성된다. 생성된 멜라닌은 젊은 사람의 경우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피부의 각화 작용에 따라 각질층 위에서 속속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나 노화됨에 따라 피부 기능이 둔화되어 각화작용이 잘 되지 않으므로 과색소침착증이 쉽게 발생된다. 색소침착 증 기미는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나 주로 25세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거나 유전적 요인, 임신, 간질환, 생리불순, 폐경 등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주근깨는 대체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5~6세의 소아기에 발생하며 사춘기 전후에 눈에 띄게 나타나다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외선과 관련이 있어 햇빛노출 부위에 잘 발생하는데 여름철에 그 수가 증가하고 색깔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성 반점은 주근깨에 비해 훨씬 크고 불규칙한 모양의 검은색 색소성 반점들이 산재하여 생긴다. 잘 생기는 부위는 손등과 이마이며 주로 50대 이후에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얼굴, 손등, 어깨 등에 걸쳐 주로 햇빛노출 부위에 불규칙하게 갈색 반점이 발생한다.

여드름자국은 여드름의 후유증으로 염증성 여드름 균의 경우 손으로 만지거나 함부로 짜기,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¹⁷⁾.

2. 피부분석방법

피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문진, 견진, 촉진, 기계법이 있다.

피부 각질층의 유분함유량은 피지분비의 과잉, 부족, 적당량으로 파악하는데 판별기준은 수면 후 얼굴 표면을 티슈로 눌러 봤을 때 기름이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확인하여 판별한다¹⁸⁾. 또한, 피부표면의 유분량은 유분측정기(Oil Measuring Instrument)을 통해 관독할 수 있는데 피부 유분의 투광성을 광도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고안된 플라스틱 테이프에 묻은

17) 이정란, 여성의 피부건강상태와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년, pp.10-18

18) 구재희, 여성의 피부관리실태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3, p.23

유분을 측정한다¹⁹⁾.

피부 각질층의 수분보유량은 볼 아래 부위의 피부를 윗방향으로 한손으로 올려 보았을 때 잔주름이 가로로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이때 잔주름이 많이 형성되었을 때는 수분보유량이 부족하므로 수분부족피부로 판단한다²⁰⁾. 또한 인공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우드램프로 피부표면 수분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²¹⁾고주파 전류에 대한 피부의 전도도, 즉 저항의 역계수를 측정함으로써 수분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Hydrometer, 피부에서 가장 높은 절연 계수를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에 다른 정전용량을 측정함으로써 수분함량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값이 높을수록 수분함량이 높은 Corneometer도 측정할 수 있다²²⁾.

피부 각질화 상태는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부드럽거나 거친 느낌 또는 표면이 일정치 않거나 일정하게 매끄러운 느낌으로 알 수 있고 피부분석기(Skin scope)를 통하여 피부표면의 조직상태를 80배율의 렌즈를 사용하여 확대·관찰할 수 있으며²³⁾필요한 영상을 프린터를 통해 바로 사진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다²⁴⁾.

피부모공의 크기는 확대경을 통해 잘 관찰할 수 있다. 확대경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잔주름, 색소침착, 면포를 비롯한 여드름의 피부상태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구로 일반적으로 육안의 3.5~5배율의 확대경이 주로 사용되어 진다²⁵⁾. 또한, 피부분석기(Skin scope)를 통해서도 피부상태를 80배율 렌즈를 사용하여 확대·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영상을 프린터를 통해 바로 사진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다²⁶⁾.

탄력상태는 촉진법에 의해 turgor와 tonus로 나누어 판별하는데 turgor

19) 김유정,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2, p.233

20)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p.150-152

21) 김영은,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 제안,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9

22) 강수경, 중년여성의 안면피부상태와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p.8

23)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p.150-152

24) 장경자, 20대 초반 여성의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10-15

25) 김기갑·허순득 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피부미용학, 형설출판사, 2005, p.16

26) 장경자, 20대 초반 여성의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10-15

는 탄력성이 있는 속이 빈 공동체의 내부긴장도를 의미하며 측정할 때에는 엄지와 검지를 집게처럼 하여 눈 바로 밑의 피부를 집어 올려보아 피부가 곧바로 원상태로 돌아가면 turgor의 탄성이 좋은 경우이고, 주름이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면 turgor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tonus는 탄력섬유의 긴장도를 의미하며 엄지와 검지로 턱뼈상단의 볼 근육을 잡아 당겨서 피부를 긴장시켰을 때 손쉽게 잡아당겨지면 탄력성이 저하된 상태이고 피부가 잡아지지 않으면 탄력성이 좋은 상태로 판별한다²⁷⁾. 또한, 모니터 피부 분석기를 통해 피부상태를 30~800배가량 확대하여 비교·분석하여 모니터상의 영상을 프린터를 통해 사진으로 출력하여 본인의 문제성 피부를 피부 관리사와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²⁸⁾ 공집점 광학현미경, 주사현미경(SEM)화상 계측 방법도 있다.

피부 예민도는 플라스틱 화장품 주걱으로 이마, 볼, 데콜테 부위의 피부를 그어보는 물리적 자극에 대한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이때 생긴 자국이 빨리 없어지면 정상적인 피부이고 그은 자리가 오랫동안 빨갛게 남거나 또는 점차 하얗게 변하면서 부분적으로 부풀어 오르면 예민 피부로 간주한다. 또한, 알러지 피부는 정상인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감각된 사람에게만 반응하도록 농도를 조정한 알레르겐을 밀폐접포로 피부에 붙여 48시간 후에 이를 제거하되, 최소한 제거 30분 후에 이를 판독하고, 다시 한번 48시간을 더 관찰하여 48시간이상 경과되어 간혹 발생하는 지연성 과민반응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인 첩포검사(Patch test)가 있고 모세혈관확장피부는 육안으로 판별가능하나 확대경을 사용하며²⁹⁾ 우드램프로 인공자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피부표면의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27)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p.153-154

28) 김기연 외, 피부관리학 I, 수문사, 1999, pp.26-27

29)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pp.150-152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314명을 일반화를 위한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그 중 20-24세 76명, 25-30세 76명, 31-35세 78명, 36-40세 78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10년 이상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바 있는 10명의 피부미용전문인을 선정하여 설문지에 대한 교육을 한 후 면접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가 된 설문지는 총 310부였으며 회수가 되지 않았거나 응답내용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304부만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일반사항은 월 소득,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 자녀의 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생활습관은 음주, 흡연, 운동 습관, 스트레스, 규칙적인 기상·취침과 식습관, 자외선의 9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화장품 사용실태는 전문가의 상담 후 화장품의 구입여부, 기능성화장품의 사용, 화장품 구입처, 화장품 구매 시 고려하는 점, 세안제품, 화장수·에센스·영양크림·아이크림·팩·자외선차단제·Body관련 화장품·딤클렌징 제품 사용유무 등 14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피부관리태도는 피부관리지식의 습득경로와 세안습관, 피부관리실을 이용한다면 전문피부관리실을 찾는 횟수, 전문관리실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피부관리를 위한 평상시 태도의 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피부진단을 위한 조사

피부미용전문인의 관찰에 의한 설문지조사는 피부유형과 피부건강상태 문항으로 피부미용전문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피부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 화장을 지운 후 세안 3시간 후의 상태로 측정하였으며³⁰⁾ 문진법을 포함하여 육안의 3.5~5배가량 확대되어 보이는 확대경을 사용한 견진법과 피부를 직접 만져보거나 집어 보아 판독하는 촉진법도 병행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부유형과 피부건강상태분석은 M사의 피부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피부미용전문인의 견진·촉진이 같이 이루어졌다³¹⁾.

피부유형은 유분함유량, 수분보유량, 피부결의 상태, 화장의 지속도, 피부두께, 모공의 크기, 피부트러블의 7문항을 파악하여 그 중 3개 문항 이상의 답이 ①에 해당 시 건성피부, ②에 해당 시 중성피부, ③에 해당 시 지성피부, ④에 해당 시 복합성피부로 판정하였다(참조 : <부록 2> 피부진단 프로그램).

피부건강상태는 예민 상태 측정 3문항, 탄력상태 측정 3문항, 여드름상태 측정 3문항, 색소침착상태 3문항으로 유무와 상태 및 부위를 조사하였다.

이 중 예민 상태는 볼 부위의 실핏줄 유무, 화장품 교체 시 피부트러블의 유무, 외부자극에 대한 민감도 유무의 3문항 중 2개 문항 이상의 답이 ①에 해당될 때 예민 피부, 그렇지 않은 경우 비예민 피부로 판정하였다.

탄력상태는 촉진 시 회복상태, 눈가주름의 육안식별여부, 입가주름의 육안식별여부의 3개 문항 중 2개 문항이상의 답이 ②에 해당될 때는 비탄력피부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탄력피부로 판정하였다.

피부미용전문인의 견진에 의한 여드름상태는 여드름의 유무, 정도, 부위의 3항목을 파악하였고 색소침착상태는 유무, 종류, 부위의 3항목을 파악하였다(참조 : <부록 2> 피부진단 프로그램).

30) 김수정, 여성의 피부형과 피지분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원 석사논문, 2001,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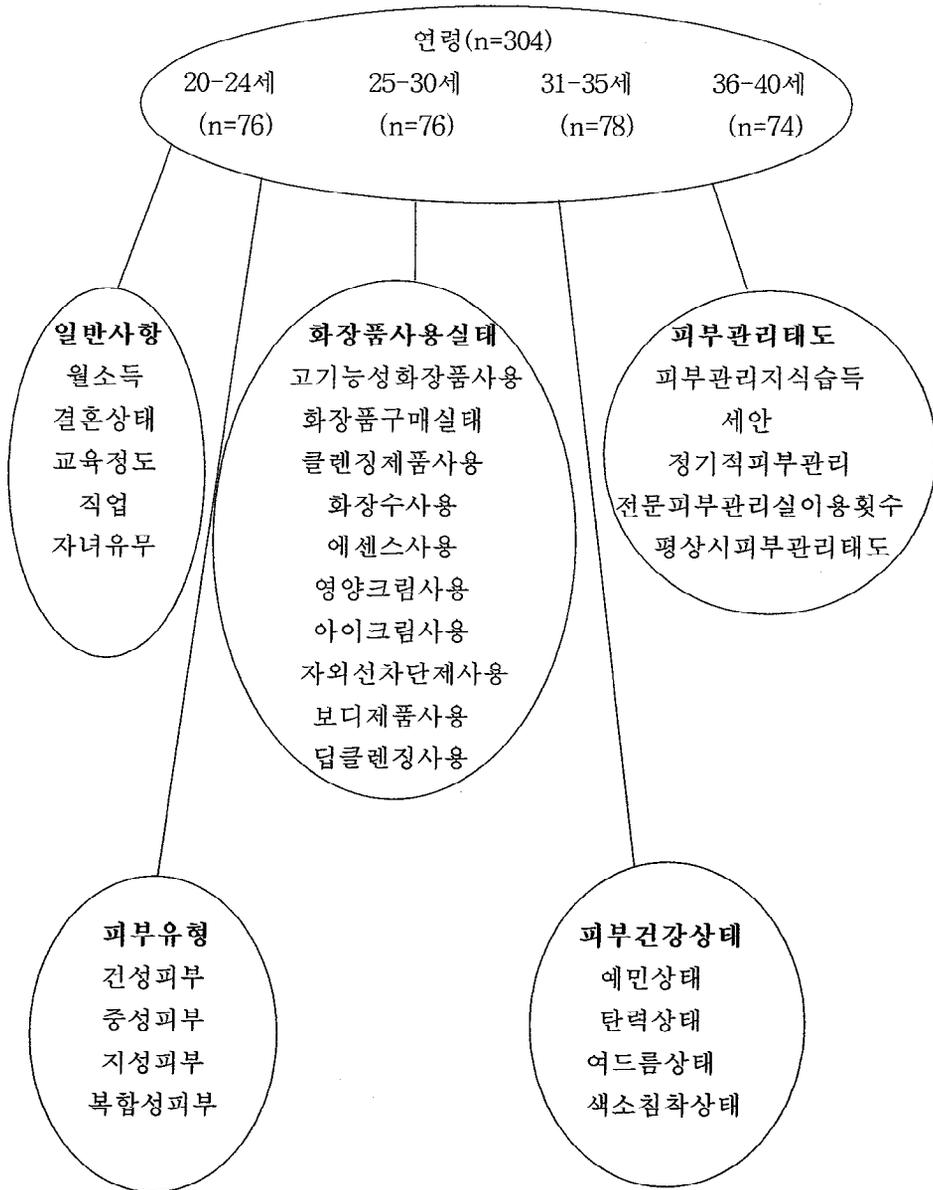
31) www.milakorea.co.kr, 2005, Milakorea co. kr. LTD, Skin chech-up.

3. 자료분석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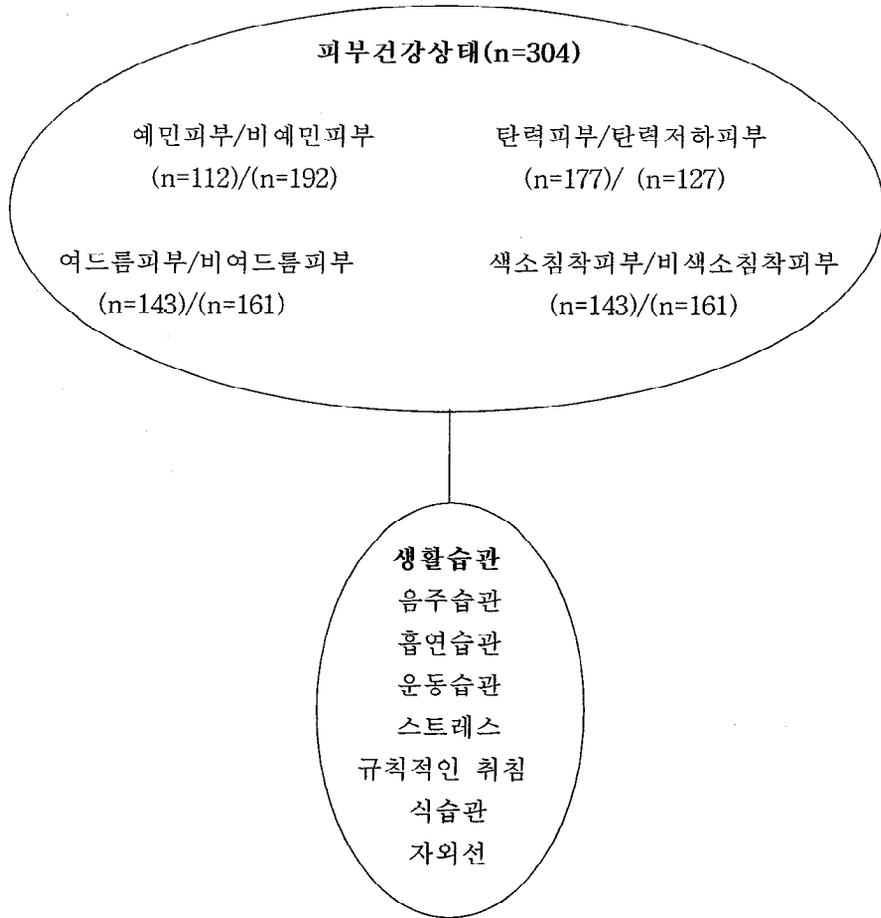
연령군별(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피부유형과 피부건강상태, 화장품사용실태, 피부 관리태도 자료의 분석은 χ^2 (Chi-Square test)검정을 통해 연령과 변수간의 유의성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피부건강상태에서 나타난 예민 피부, 탄력저하피부, 여드름피부, 색소침착 피부와 생활습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분법을 사용하여 20대와 30대군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요인을 찾아내고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4. 연구의 설계



<그림 1> 연구의 틀1



<그림 2> 연구의 틀2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

<표 3> 대상자의 일반사항

	N(%)				Total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가계월소득					
150만원 미만	60(80.0)	31(40.8)	3(3.8)	1(1.4)	95(31.4)
150-250만원	9(12.0)	39(51.3)	26(33.3)	3(4.1)	77(25.4)
250-350만원	4(5.3)	4(5.3)	25(32.1)	18(24.3)	51(16.8)
350-450만원	0(0.0)	0(0.0)	15(19.2)	24(32.4)	39(12.4)
450만원 이상	2(2.7)	2(2.6)	9(11.5)	28(37.8)	41(13.5)
결혼상태					
미혼	71(93.4)	63(82.9)	26(33.3)	8(10.8)	168(55.3)
기혼	3(3.9)	13(17.1)	49(62.8)	63(85.1)	128(42.1)
이혼사별	2(2.6)	0(0.0)	3(3.8)	3(4.1)	8(2.6)
교육정도					
고졸	24(31.6)	3(3.9)	15(19.2)	5(6.8)	47(15.5)
전문대졸	41(53.9)	20(26.3)	10(12.8)	7(9.5)	78(25.7)
대졸	10(13.2)	39(51.3)	38(48.7)	42(56.8)	129(42.4)
대학원이상	1(1.3)	14(18.4)	15(19.2)	20(27.0)	50(16.4)
직업					
학생	42(56.0)	7(9.2)	4(5.1)	4(5.5)	57(18.9)
관리사무직	8(10.7)	25(32.9)	19(24.4)	7(9.6)	59(19.5)
전업주부	3(4.0)	9(11.8)	29(37.2)	32(43.8)	73(24.2)
전문직	5(6.7)	17(22.4)	15(19.2)	20(27.4)	57(18.9)
판매서비스직	14(18.7)	11(14.5)	5(6.4)	6(8.2)	36(11.9)
기타	3(4.0)	7(9.2)	6(7.7)	4(5.5)	20(6.6)
자녀					
없음	75(98.7)	70(92.1)	33(42.3)	12(16.2)	190(62.5)
1명	1(1.3)	6(7.9)	24(30.8)	23(31.1)	54(17.8)
2명	0(0.0)	0(0.0)	20(25.6)	33(44.6)	53(17.4)
3명	0(0.0)	0(0.0)	1(1.3)	6(8.1)	7(2.3)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계월 소득은 20-24세가 150만원 미만으로 80%(60명), 25-29세가 150~250만원 미만으로 51.3%(39명), 30-34세가 150~250만원 미만으로 33.3% (26명), 35-39세가 450만원 이상으로 37.8%(28명)이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 이 20-24세로 93.4%(71명), 25-29세가 82.9%(63명), 30-34세가 33.3%(33명), 35-39세가 10.8%(8명)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20-24세는 ‘학생’ 이 56%(42명), 25-29세는 ‘관리사무직’ 이 32.9%(25명), 30-34세는 ‘전업주부’ 가 37.2%(29명), 35-39세는 ‘전업주부’ 가 43.8%(32명)로 나타났다.

자녀는 ‘없음’ 이 20-24세가 98.7%(75명), 25-29세가 92.1%(70명), 30-34세가 42.3%(33명), 35-39세가 16.2%(12명)로 나타났고 ‘1명’ 은 20-24세가 1.3%(1명), 25-29세가 7.9%(6명), 30-34세가 30.8%(24명), 35-39세가 31.1%(23명)로 나타났다.

2. 연령별 피부상태

<표 4> 연령별 피부상태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피부유분함유량						
건조,윤기없음	19(25.0)	16(21.1)	29(37.2)	35(47.3)	99(32.6)	27.171
적당한 윤기	15(19.7)	16(21.1)	21(26.9)	13(17.6)	65(21.4)	(***)
번들거림 심함	21(27.6)	13(17.1)	7(9.0)	6(8.1)	47(15.5)	
부분적번들거림	21(27.6)	31(40.8)	21(26.9)	20(27.0)	93(30.6)	
피부수분보유량						
당긴다	17(22.4)	8(10.5)	21(26.9)	42(56.8)	88(28.9)	109.152
당기지않고적절	17(22.4)	15(19.7)	13(16.7)	10(13.5)	55(18.1)	(***)
당긴적 없음	34(44.7)	10(13.2)	7(9.0)	0(0.0)	51(16.8)	
부분적 당김	8(10.5)	43(56.6)	37(47.4)	22(29.7)	110(36.2)	
피부결상태						
섬세하나 거칠	14(18.4)	17(22.4)	24(31.2)	28(37.8)	83(27.4)	36.814
섬세하고 매끈	23(30.3)	22(28.9)	27(35.1)	22(29.7)	94(31.0)	(***)
거칠다	31(40.8)	17(22.4)	8(10.4)	21(28.4)	77(25.4)	
부분적상태차이	8(10.5)	20(26.3)	18(23.4)	3(4.1)	49(16.2)	
화장지속도						
들며 보임	20(26.7)	17(22.7)	19(24.4)	32(43.2)	88(29.1)	15.366
곱게 지속	14(18.7)	15(20.0)	21(26.9)	9(12.2)	59(19.5)	
쉽게 지워짐	22(29.3)	18(24.0)	14(17.9)	13(17.6)	67(22.2)	
부분적 지워짐	19(25.3)	25(33.3)	24(30.8)	20(27.0)	88(29.1)	
피부두께						
얇다	10(13.3)	12(15.8)	31(39.7)	41(55.4)	94(31.0)	50.401
적당한편	38(50.7)	37(48.7)	29(37.2)	22(29.7)	126(41.6)	(***)
두텁다	15(20.0)	22(28.9)	10(12.8)	5(6.8)	52(17.2)	
부분마다차이	12(16.0)	5(6.6)	8(10.3)	6(8.1)	31(10.2)	
피부모공크기						
작다	17(22.4)	16(21.1)	11(14.1)	17(23.0)	61(20.1)	15.458
적당한편	26(34.2)	29(38.2)	48(61.5)	35(47.3)	138(45.4)	
눈에띄게 큼	7(9.2)	5(6.6)	3(3.8)	5(6.8)	20(6.6)	
부분적으로 큼	26(34.2)	26(34.2)	16(20.5)	17(23.0)	85(28.0)	
피부트러블						
뾰루지,자갈생기고,						
잔주름,자갈생기지	19(25.0)	26(34.2)	32(41.0)	42(56.8)	119(39.1)	27.226
않음						(***)
자갈생기지 않음	7(9.2)	5(6.6)	12(15.4)	3(4.1)	27(8.9)	
잘나는 편	22(28.9)	13(17.1)	14(17.9)	8(10.8)	57(18.8)	
특정부위만 남	28(36.8)	32(42.1)	20(25.6)	21(28.4)	101(33.2)	

*** p<0.00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피부상태를 알아보는 표 4에서는 피부 유분함유량이 20-24세가 ‘번들거림이 심함’ 이 27.6%(21명), ‘부분적 번들거림’ 이 27.6%(22명)로 나타났으며 25-29세는 ‘번들거림이 심함’ 이 17.1%(13명) ‘부분적 번들거림’ 이 40.8%(31명), 30-34세와 35-39세는 ‘건조하고 윤기 없다’ 가 각각 37.2%(29명)와 47.3%(35명)으로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피부수분보유량도 ‘당긴다’ 가 20-24세는 22.4%(17명), 25-29세는 10.5%(8명), 30-34세는 26.9%(21명), 35-39세는 56.8%(42명)로 30대가 20대 연령군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피부결 상태는 ‘섬세하나 거칠다’ 가 20-24세는 18.4%(14명), 25-29세는 22.4%(17명), 30-34세는 13.2%(24명), 35-39세는 37.8%(28명)이고 ‘거칠다’ 가 20-24세는 40.8%(31명), 25-29세는 10.4%(8명), 35-39세는 28.4%(21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피부두께는 ‘얇다’ 가 20-24세는 13.3%(10명), 25-29세가 15.8%(12명), 30-34세가 39.7%(31명), 35-39세가 55.4%(41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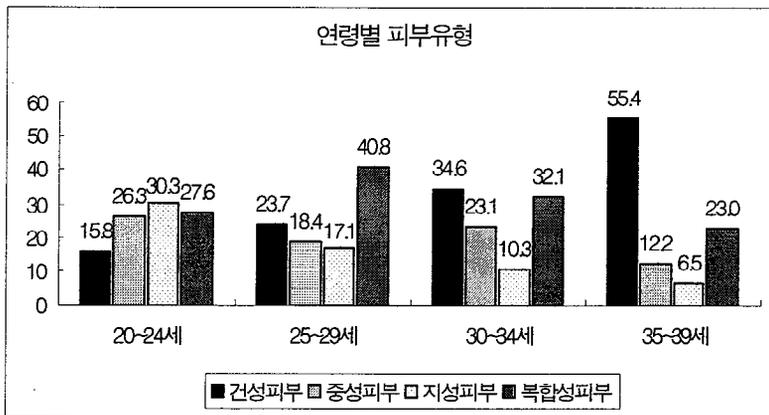
피부트리블은 ‘어드름, 뾰루지는 잘 생기지 않고 잔주름은 잘 생긴다’ 가 20-24세는 25.0%(19명), 25-29세는 34.2%(26명), 30-34세는 41.0%(32명), 35-39세는 56.8%(42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3. 연령별 피부유형

<표 5> 연령별 피부유형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종합피부유형						
건성피부	12(15.8)	18(23.7)	27(34.6)	41(55.4)	98(32.2)	41.586
중성피부	20(26.3)	14(18.4)	18(23.1)	9(12.2)	61(20.1)	(***)
지성피부	23(30.3)	13(17.1)	8(10.3)	7(9.5)	51(16.8)	
복합성피부	21(27.6)	31(40.8)	25(32.1)	17(23.0)	94(30.9)	

*** p<0.001



<그림 3> 연령별 피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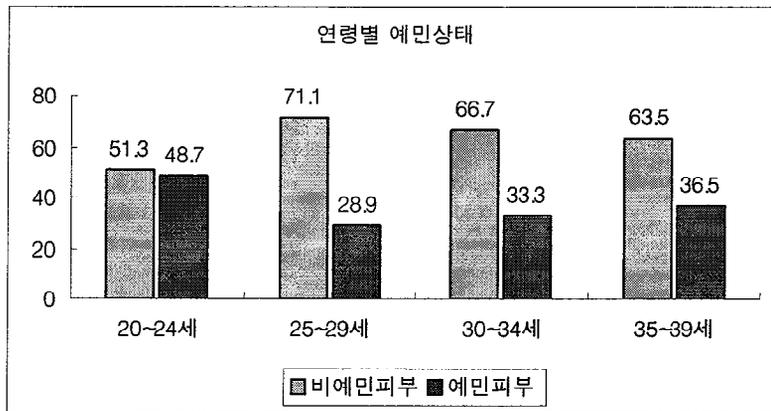
따라서 표 4의 연령별 피부상태를 종합하여 표 5와 그림 3의 연령별 피부유형을 살펴보면 20-24세는 지성피부가 30.3%(23명), 25-29세는 복합성피부가 40.8%(31명), 30-34세는 건성피부가 34.6%(27명), 35-39세는 건성피부가 55.4%(41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4. 연령별 피부건강상태

<표 6> 연령별 예민상태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예민상태1						12.403
실핏줄안보임	45(59.2)	64(84.2)	56(71.8)	56(75.7)	221(72.7)	(**)
실핏줄보임	31(40.8)	12(15.8)	22(28.2)	18(24.3)	83(27.3)	
예민상태2						3.952
트리블잘안생김	38(50.0)	39(51.3)	49(62.8)	45(60.8)	171(56.3)	
트리블잘생김	38(50.0)	37(48.7)	39(37.2)	29(39.2)	133(43.7)	
예민상태3						10.466
붉어지지않음	36(47.4)	55(72.4)	49(62.8)	42(56.8)	182(59.9)	(*)
화끈,민감반응	40(52.6)	21(27.6)	29(37.2)	32(43.2)	122(40.1)	
종합예민상태						7.033
비예민피부	39(51.3)	54(71.1)	52(66.7)	47(63.5)	192(63.2)	
예민피부	37(48.7)	22(28.9)	26(33.3)	27(36.5)	112(36.8)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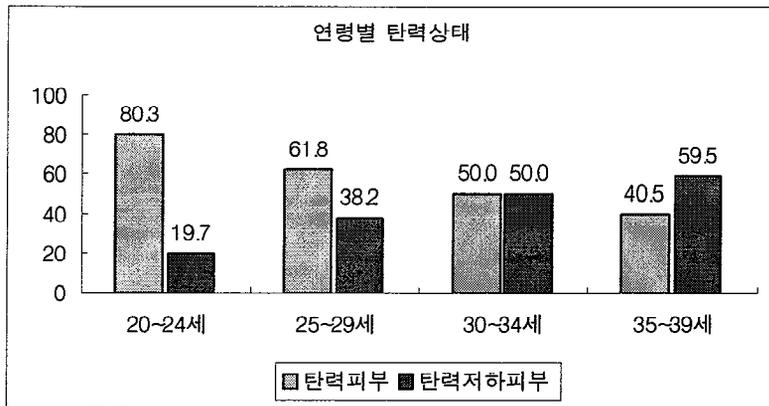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예민상태

연령별 예민 상태는 표 6과 그림 4를 살펴보면 연령군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민 상태’가 20-24세가 48.7%(37명), 25-29세가 28.9%(22명), 30-34세가 33.3%(26명), 34-39세가 37.5%(27명)로 나타났다.

<표 7> 연령별 탄력상태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탄력상태1						20.394
만질시빠른회복	69(90.8)	65(85.5)	56(71.8)	45(63.4)	235(78.1)	(***)
만질시회복저하	7(9.2)	11(14.5)	22(28.2)	26(36.6)	66(21.9)	
탄력상태2						23.652
눈가주름	28(36.8)	11(14.5)	14(17.9)	5(6.8)	58(19.1)	(***)
육안식별불가능						
눈가주름	48(63.2)	65(85.5)	64(82.1)	68(93.2)	245(80.9)	
육안식별가능						
탄력상태3						14.571
입가주름	56(73.7)	49(64.5)	43(55.1)	33(44.6)	181(59.5)	(**)
육안식별불가능						
입가주름	20(26.3)	27(35.5)	35(44.9)	41(55.4)	123(40.5)	
육안식별가능						
종합탄력상태						27.268
탄력피부	61(80.3)	47(61.8)	39(50.0)	30(40.5)	177(58.2)	(***)
탄력저하피부	15(19.7)	29(38.2)	39(50.0)	44(59.5)	127(41.8)	

*** p<0.001 ** p<0.01



<그림 5> 연령별 탄력상태

연령별 탄력상태는 표 7과 그림 5에서 탄력상태1 의 ‘손가락으로 뺨 중앙 부위를 집어 올렸을 때 잡히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놓았을 때 빨리 회복 된다’ 가 20-24세는 90.8%(69명), 25-29세는 85.5%(65명), 30-34세는 71.8%(56명), 35-39세는 63.4%(45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탄력상태 2 의 ‘웃을 때도 거의 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찾기 힘들다’ 가 20-24세는 36.8%(28명), 25-29세는 14.5%(11명), 30-34세는 17.9%(14명), 35-39세는 6.8%(5명)로 모든 연령 대부분이 웃을 때 눈가주름이 쉽게 잡히거나 눈가에 주름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탄력상태 3 의 ‘이마나 입가주름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가 20-24세는 26.3%(20명), 24-29세는 35.5%(27명), 30-34세는 44.9%(35명), 35-39세 55.4%(41명)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높은 군이 이마나 입가의 주름도 점차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유의성이 나타났다($p < 0.01$).

즉, 종합탄력상태에서 ‘탄력저하피부’ 가 20-24세는 19.7%(15명), 25-29세는 38.2%(29명), 30-34세는 50.0%(39명), 35-39세는 59.5%(44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표 8> 연령별 여드름상태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여드름증상						
정도1	35(77.8)	25(61.0)	28(82.4)	22(81.5)	110(74.8)	13.025
정도2	6(13.3)	11(26.8)	6(17.6)	3(11.1)	26(17.7)	
정도3	2(4.4)	4(9.8)	0(0.0)	0(0.0)	6(4.1)	
정도4	2(4.4)	1(2.4)	0(0.0)	2(7.4)	5(3.4)	
여드름부위						
이마	21(30.9)	19(27.1)	10(19.2)	3(8.6)	53(23.6)	26.020
뺨	10(14.7)	13(18.6)	6(11.5)	5(14.3)	34(15.1)	
코주위	8(11.8)	5(7.1)	2(3.8)	3(8.6)	18(8.0)	
입,턱주위	16(23.5)	11(15.7)	20(38.5)	14(40.0)	61(27.1)	
목,가슴 및 등	2(2.9)	6(8.6)	6(11.5)	3(8.6)	17(7.6)	
얼굴전체	7(10.3)	14(20.0)	8(15.4)	6(17.1)	35(15.6)	
기타	4(5.9)	2(2.9)	0(0.0)	1(2.8)	7(3.1)	
종합여드름상태						
비여드름피부	31(40.8)	35(46.1)	44(56.4)	47(63.5)	157(51.6)	9.421 (*)
여드름피부	45(59.2)	41(53.9)	34(43.6)	27(36.5)	147(48.4)	

* p<0.05

정도1 : 얼굴의 반쪽에 1-10개 정도의 면포, 구진, 농포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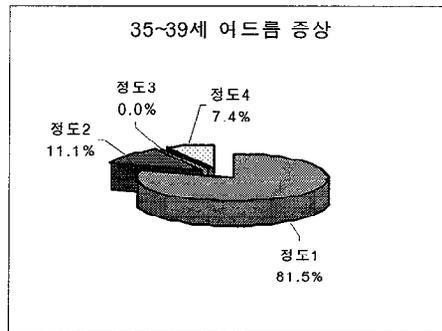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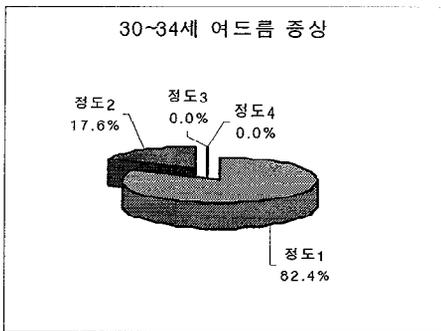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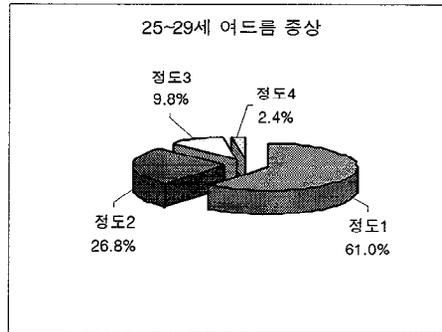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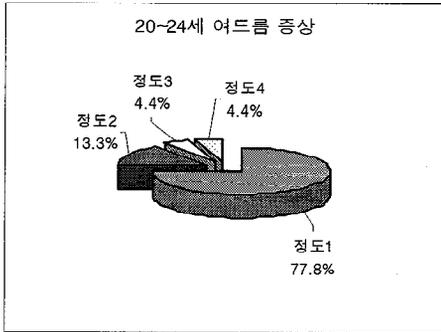
정도2 : 얼굴의 반쪽에 11-20개 정도의 면포, 구진, 농포의 발생

정도3 : 얼굴의 반쪽에 21-30개 정도의 면포, 구진, 농포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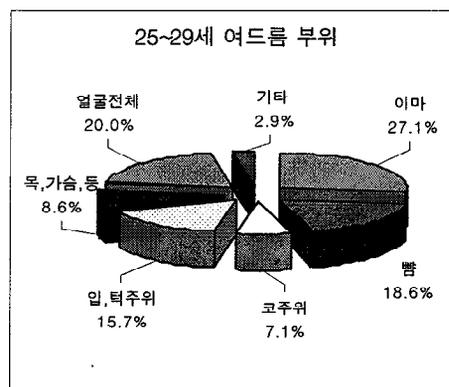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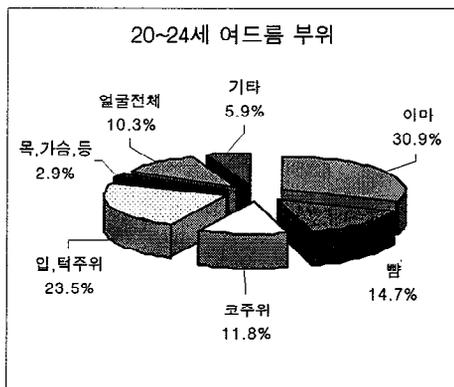
정도4 : 얼굴의 반쪽에 31개의 이상의 면포, 구진, 농포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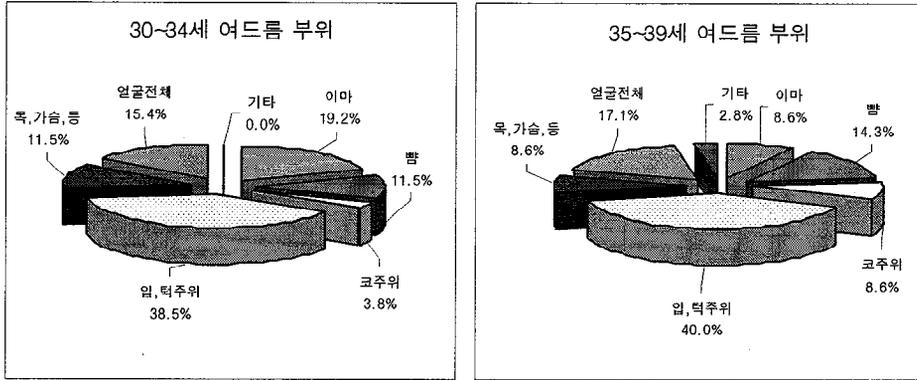
연령별 여드름 상태에서 여드름 증상은 표 8과 그림 6에서와 같이 전체 연령군 74.5%가 여드름 정도 1로 나타나 20대와 30대 연령에서는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의 부위는 표 8과 그림 7에서와 같이 20-24세와 25-29세는 각각 '이마' 부위가 30.9%(21명)와 27.1%(19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나타났으며 30-34세와 35-39세는 '입·턱 주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각각 38.5%(20명)와 40.4%(14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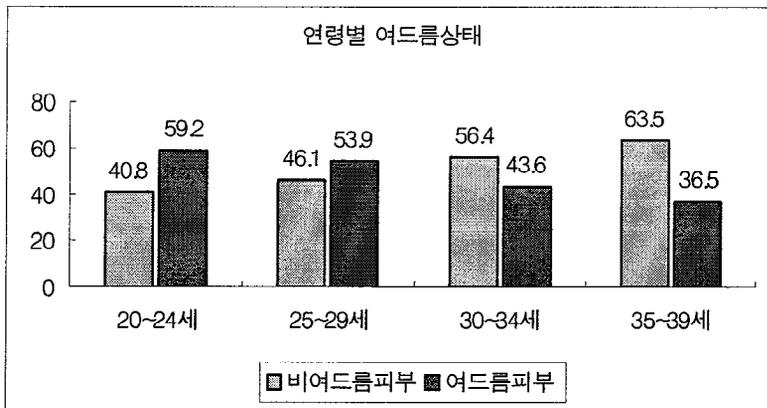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여드름 증상





<그림 7> 연령별 여드름 부위



<그림 8> 연령별 여드름 상태

따라서 연령별 여드름피부 상태를 표 8과 그림 8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여드름피부'가 20-24세는 59.2%(45명), 25-29세는 53.9%(41명), 30-34세는 43.6%(34명), 35-39세는 36.5%(27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로 연령이 낮은 군이 여드름피부가 많은 유의성이 나타났다($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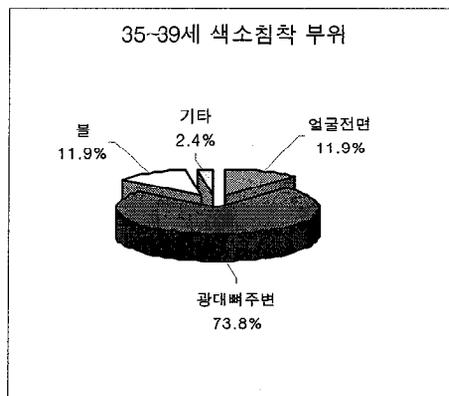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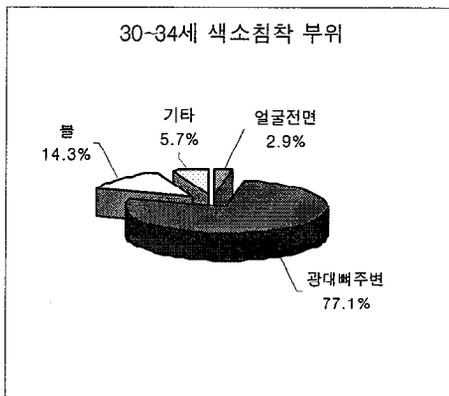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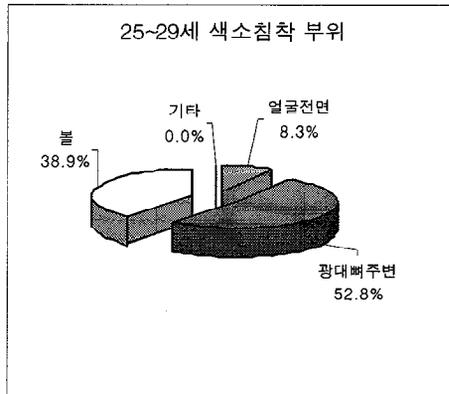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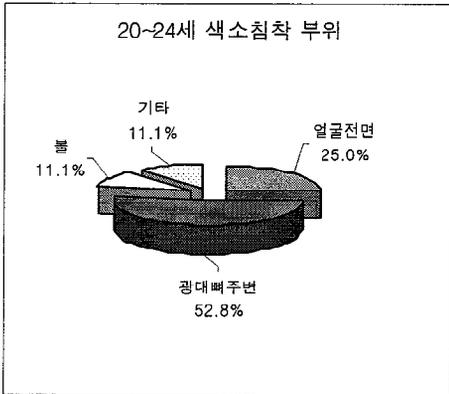
<표 9> 연령별 색소침착상태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Total	N(%)
	(n=76)	(n=76)	(n=78)	(n=74)		χ^2
색소침착부위						
얼굴전면	9(25.0)	3(8.3)	1(2.9)	5(11.9)	18(12.1)	26.533
광대뼈주변	19(52.8)	19(52.8)	27(77.1)	31(73.8)	96(64.4)	(**)
볼	4(11.1)	14(38.9)	5(14.3)	5(11.9)	28(18.8)	
기타	4(11.1)	0(0.0)	2(5.7)	1(2.4)	7(4.7)	
색소침착종류						
기미	4(11.1)	3(9.7)	21(72.4)	29(74.4)	57(42.2)	61.937
주근깨	21(58.3)	13(41.9)	6(20.7)	9(23.1)	49(36.3)	(***)
여드름자국	11(30.6)	15(48.4)	2(6.9)	1(2.6)	29(21.5)	
종합						9.920
색소침착상태						(*)
색소침착피부	36(47.4)	37(48.7)	48(61.5)	51(68.9)	172(56.6)	
비색소침착피부	40(52.6)	39(51.3)	30(38.5)	23(31.1)	13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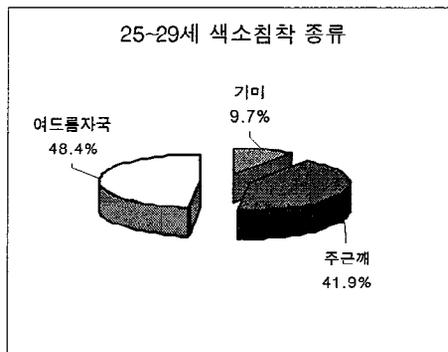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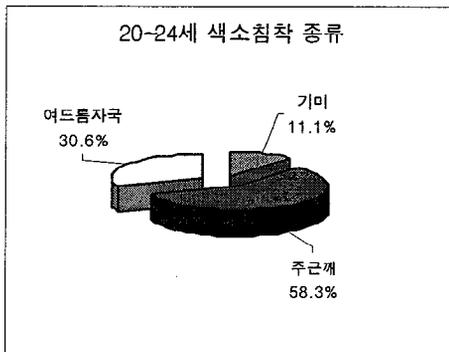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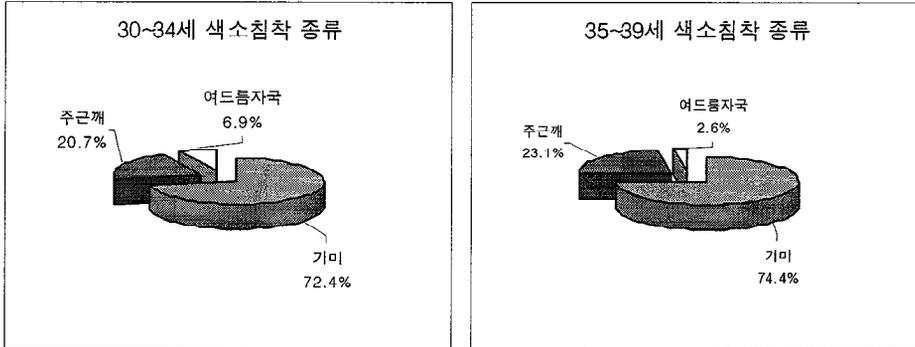
연령별 색소침착 상태에서 색소침착 부위는 표 9와 그림 9에서와 같이 ‘광대뼈주변’ 이 20-24세는 52.8%(19명), 24-29세는 52.8%(19명), 30-34세는 77.1%(27명), 34-39세는 73.8%(31명)이고 연령군 Total 64.4%(96명)로 가장 색소 침착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며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색소침착의 종류는 표 9와 그림 10에서와 같이 ‘기미’ 가 20-24세는 11.1%(4명), 25-29세는 9.7%(3명), 30-34세는 72.4%(21명), 35-39세는 42.2%(29명)이었으며 ‘주근깨’ 가 20-24세는 58.3%(21명), 25-29세는 41.9%(13명), 30-34세는 20.7%(6명), 35-39세는 23.1%(9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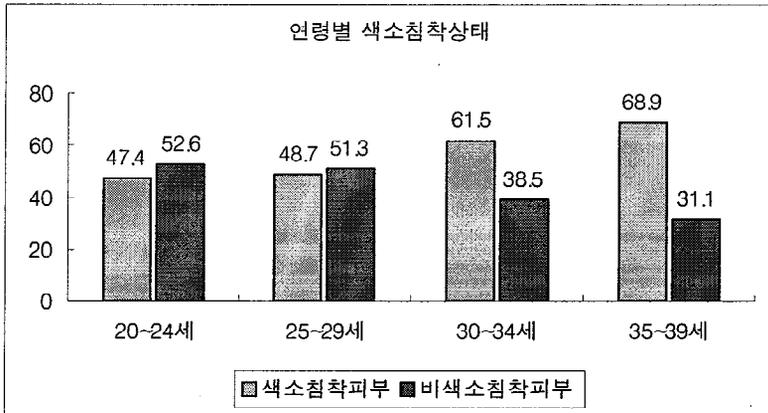


<그림 9> 연령별 색소침착 부위





<그림 10> 연령별 색소침착 종류



<그림 11> 연령별 색소침착 상태

따라서 연령별 색소침착 상태를 표 9와 그림 11에서와 같이 살펴 보면 '색소침착피부'가 20-24세는 47.4%(36명), 25-29세는 48.7%(37명), 30-34세는 61.5%(48명), 35-39세는 68.9%(51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로 연령이 높은 군이 색소침착피부가 많은 유의성이 나타났다 ($p < 0.05$).

5. 피부건강상태의 생활습관 결정요인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수 로지스틱분석에 들어간 변수는 연령 및 음주습관, 흡연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기상취침시간, 자극성음식, 인스턴트음식, 단음식, 자외선이었다. 이들 변수의 측정수준은 표 10에서와 같다.

<표 10> 다변수 로지스틱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측정수준

변수	부호	측정수준
종속변수		
여드름군, 색소침착군, 예민군, 탄력저하군	1	현재 있는군
비여드름군, 비색소침착군, 비예민군, 비탄력저하군	0	현재 없는군
독립변수		
연령	0	20대
	1	30대
음주습관	0	마시지 않는다
	1	주1회 이상
흡연습관	0	피우지 않는다
	1	1개피 이상/일
운동습관	0	안한다
	1	한다
스트레스	0	없는편
	1	가끔 이상
기상 및 취침시간	0	규칙적이다. 보통이다
	1	불규칙적이다
자극성음식	1	좋아한다
	0	보통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인스턴트음식	1	좋아한다
	0	보통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단음식	1	좋아한다
	0	보통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자외선	0	1-3시간미만
	1	3시간이상

1) 예민 상태와 생활습관

<표 11> 이분형 로지스틱분석에 의한 예민 피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위험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비차비	비차비의 95% 신뢰구간
연령	0.010(0.251)	0.968	1.010	0.617~1.654
음주습관	-0.359(0.278)	0.196	0.698	0.405~1.203
흡연습관	0.700(0.369)	0.048(*)	2.014	0.977~4.152
운동습관	-0.405(0.255)	0.113	0.667	0.405~1.100
스트레스	-0.264(0.323)	0.414	0.768	0.408~1.446
기상취침시간	0.404(0.289)	0.162	1.498	0.850~2.642
자극성음식	0.127(0.257)	0.621	1.136	0.686~1.879
인스턴트음식	-0.049(0.301)	0.871	0.952	0.528~1.719
단음식	0.274(0.311)	0.378	1.315	0.715~2.418
자외선	-0.260(0.267)	0.330	0.771	0.457~1.301

* p<0.05

예민 피부와의 관련성에서는 표 11에서와 같이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예민 피부 발생률이 약 2.0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5).

이외에 연령, 음주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기상 및 취침시간, 자극성 음식, 인스턴트음식, 단음식, 자외선의 변수들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2) 탄력상태와 생활습관

<표 12> 이분형 로지스틱분석에 의한 탄력저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위험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비차비	비차비의 95% 신뢰구간
연령	0.713(0.252)	0.005(**)	2.040	1.245~3.345
음주습관	-0.138(0.283)	0.626	0.871	0.500~1.518
흡연습관	0.078(0.403)	0.846	1.082	0.491~2.383
운동습관	0.284(0.262)	0.277	1.329	0.796~2.220
스트레스	-0.034(0.329)	0.917	0.966	0.507~1.841
기상취침시간	-0.356(0.306)	0.245	0.700	0.384~1.276
자극성음식	-0.377(0.260)	0.147	0.686	0.412~1.142
인스턴트음식	0.195(0.315)	0.431	0.499	0.269~0.925
단음식	-0.163(0.329)	0.620	0.850	0.446~1.618
자외선	0.687(0.270)	0.008(**)	1.649	0.982~2.722

** p<0.01

탄력저하피부와의 관련성에서는 표 12에서와 같이 연령이 30대인 경우 20대인 경우보다 탄력저하 발생률이 약 2.0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1).

자외선을 3시간 이상 받는 경우 3시간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탄력저하 발생률이 약 1.6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1).

이외에 음주습관, 흡연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기상 및 취침시간, 자극성음식, 인스턴트음식, 단음식, 자외선의 변수들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3) 여드름상태와 생활습관

<표 13> 이분형 로지스틱분석에 의한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위험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비차비	비차비의 95% 신뢰구간
연령	-0.463(0.249)	0.043(*)	0.629	0.386~1.026
음주습관	-0.116(0.277)	0.677	0.891	0.518~1.533
흡연습관	0.998(0.394)	0.011(*)	2.713	1.254~5.868
운동습관	-0.043(0.256)	0.867	0.958	0.581~1.581
스트레스	-0.152(0.323)	0.638	0.859	0.457~1.616
기상취침시간	-0.424(0.298)	0.155	0.654	0.365~1.175
자극성음식	0.089(0.255)	0.728	1.093	0.662~1.803
인스턴트음식	0.296(0.297)	0.320	1.344	0.750~2.407
단음식	0.857(0.315)	0.007(**)	2.356	1.271~4.369
자외선	0.034(0.262)	0.897	1.034	0.619~1.728

** p<0.01 * p<0.05

여드름피부와와의 관련성은 표 13에서와 같이 연령이 30대인 경우 20대인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0.6배 낮게 나타나 발생률이 통계학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5)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2.7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1).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의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1).

이외에 음주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기상 및 취침시간, 자극성음식, 인스턴트음식, 자외선의 변수들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4) 색소침착상태와 생활습관

<표 14> 이분형 로지스틱분석에 의한 색소침착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위험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비차비	비차비의 95% 신뢰구간
연령	-0.087(0.242)	0.720	0.917	0.570~1.474
음주습관	-0.014(0.269)	0.960	0.986	0.582~1.671
흡연습관	-0.425(0.376)	0.258	0.654	0.313~1.366
운동습관	-0.059(0.246)	0.812	0.943	0.582~1.529
스트레스	0.047(0.314)	0.882	1.048	0.567~1.937
기상취침시간	-0.384(0.286)	0.179	0.681	0.389~1.193
자극성음식	0.005(0.246)	0.984	1.005	0.620~1.628
인스턴트음식	-0.235(0.295)	0.426	0.791	0.443~1.411
단음식	0.559(0.306)	0.048(*)	1.749	0.960~3.187
자외선	0.736(0.255)	0.004(**)	1.419	0.818~2.318

** p<0.01 * p<0.05

색소침착피부와의 관련성은 표 14에서와 같이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색소침착 발생률이 약 1.7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5).

자외선을 3시간 이상 받는 경우 3시간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색소침착 발생률이 약 1.4배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1).

이외에 연령, 음주습관, 흡연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기상 및 취침시간, 자극성음식, 인스턴트음식, 단음식, 자외선의 변수들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6.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

<표 15>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전문가상담후 화장품사용						8.196
예	33(43.4)	50(65.8)	38(49.4)	39(52.7)	160(52.8)	
아니오	43(56.6)	26(34.2)	39(50.6)	35(47.3)	143(47.2)	
기능성 화장품사용						9.878
사용하지않는다	19(25.3)	6(7.9)	15(19.2)	10(13.5)	50(16.5)	
가끔사용한다	19(25.3)	26(34.2)	26(33.3)	24(32.4)	95(31.4)	
사용한다	37(49.3)	44(57.9)	37(47.4)	40(54.1)	158(52.1)	
평소화장품사용						6.473
외국제품	16(21.1)	18(23.7)	22(28.2)	26(35.1)	82(27.0)	
섞어서	42(55.3)	47(61.8)	42(53.8)	37(50.0)	168(55.3)	
국내제품	21(23.6)	11(14.5)	14(18.0)	11(14.9)	54(17.8)	
화장품구입처						13.801
백화점	12(17.9)	20(27.8)	17(23.3)	18(26.5)	67(23.9)	
전문피부관리실	6(9.0)	5(6.9)	8(11.0)	8(11.8)	27(9.6)	
인터넷	5(7.5)	10(13.9)	9(12.3)	3(4.4)	27(9.6)	
화장품전문점	26(38.8)	19(26.4)	29(39.7)	23(33.8)	97(34.6)	
방문판매	12(17.9)	11(15.3)	8(11.0)	12(17.6)	43(15.4)	
병원	6(9.0)	7(9.7)	2(2.7)	4(5.9)	19(6.8)	
구매시고려						15.076
품질	38(51.4)	37(50.0)	37(52.1)	29(40.8)	141(48.6)	
가격	8(10.8)	4(5.4)	5(7.0)	12(16.9)	29(10.0)	
브랜드이미지	10(13.5)	8(10.8)	9(12.7)	8(11.3)	35(12.1)	
주위권유	14(18.9)	25(33.8)	19(26.8)	20(28.2)	78(26.9)	
케이스,향	4(5.4)	0(0.0)	1(1.4)	2(2.8)	7(2.4)	
세안시제품						6.457
비누	13(17.6)	9(11.8)	11(14.5)	18(24.7)	51(17.1)	
폼클렌징	24(32.4)	22(28.9)	28(36.8)	20(27.4)	94(31.4)	
2중세안	37(50.0)	45(59.2)	37(48.7)	35(47.9)	154(51.5)	
화장수사용						6.119
사용하지않는다	7(9.2)	3(3.9)	4(5.1)	4(5.4)	18(5.9)	
가끔사용한다	16(21.1)	88(10.5)	14(17.9)	11(14.9)	49(16.1)	
매일사용한다	53(69.7)	65(85.5)	60(76.9)	59(79.7)	237(78.0)	

*** p<0.001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에센스사용						
사용하지않는다	16(21.1)	4(5.3)	0(0.0)	1(1.4)	21(6.9)	40.199
가끔사용한다	27(35.5)	25(32.9)	24(30.8)	17(23.0)	93(30.6)	(***)
매일사용한다	33(43.4)	47(61.8)	54(69.2)	56(75.7)	190(62.5)	
영양크림사용						
사용하지않는다	32(42.1)	32(42.1)	16(20.5)	3(4.1)	83(27.3)	41.763
가끔사용	19(25.0)	20(26.3)	31(39.7)	26(35.1)	96(31.6)	(***)
매일사용	25(32.9)	24(31.6)	31(39.7)	45(60.8)	125(41.1)	
아이크림사용						
사용하지않는다	51(67.1)	39(51.3)	26(33.3)	17(23.0)	133(43.8)	39.214
가끔사용	13(17.1)	18(23.7)	24(30.8)	19(25.7)	74(24.3)	(***)
매일사용	12(15.8)	19(25.0)	28(35.9)	38(51.4)	97(31.9)	
팩(마스크)사용						
사용하지않는다	10(13.2)	13(17.1)	22(28.2)	44(60.3)	89(29.4)	51.395
가끔사용	53(69.7)	55(72.4)	46(59.0)	21(28.8)	175(57.8)	(***)
규칙적으로사용	13(17.1)	8(10.5)	10(12.8)	8(11.0)	39(12.9)	
자외선차단제						
사용안함	11(14.5)	13(17.1)	5(6.4)	9(12.2)	38(12.5)	7.318
햇빛많이받을때	20(26.3)	22(28.9)	23(29.5)	20(27.0)	85(28.0)	
봄,여름	8(10.5)	8(10.5)	6(7.7)	4(5.4)	26(8.6)	
사계절	37(48.7)	33(43.4)	44(56.4)	41(55.4)	155(51.0)	
Body 관련사용						
사용하지않는다	31(40.8)	25(32.9)	22(28.2)	21(28.4)	99(32.6)	11.826
가끔사용	28(36.8)	27(35.5)	28(35.9)	18(24.3)	101(33.2)	
매일사용	17(22.4)	24(31.6)	28(35.9)	35(47.3)	104(34.2)	
딥클렌징사용						
사용하지않는다	21(27.6)	22(28.9)	33(42.3)	44(59.5)	120(39.5)	22.221
가끔사용	42(55.3)	37(48.7)	35(44.9)	23(31.1)	137(45.1)	(***)
규칙적으로사용	13(17.1)	17(22.4)	10(12.8)	7(9.5)	47(15.5)	

*** p<0.00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는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대와 30대 전체 연령군이 기능성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52.1%(158명)가 '사용한다' 로 기능성화장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화장품의 사용은 '이것, 저것 섞어서 쓴다' 가 전체 연령군 55.3%(168명)으로 20대와 30대는 화장품을 섞어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품질' 이 전체 연령군 48.6%(141명)로 화장품의 품질에 구매 포인트를 맞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세안 시 사용하는 제품은 비누와 폼 클렌징을 이용한 ‘2중 세안’ 이 전체 연령군 51.5%(154명)로 20대와 30대 연령대가 화장을 지우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화장수’ 사용 역시 전체 연령군 78.0%(237명)로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이 대부분 화장수를 바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의 사용은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로 연령이 높은 군이 ‘매일 사용한다’ 는 유의성이 나타났다($p<0.001$).

팩(마스크)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 20-24세는 13.2%(10명), 25-29세는 17.1%(13명), 30-34세는 28.2%(22명), 35-39세는 60.3%(44명)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따라서 홈케어용 팩(마스크)의 제품은 20대 연령대가 선호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전체 연령군 51.0%(144명)로 20대와 30대의 모든 연령대가 사계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외선에 대한 차단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딤 클렌징의 사용은 연령이 높은 군이 ‘사용하지 않는다’ 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7. 연령별 피부관리태도

<표 16> 연령별 피부관리태도

	20-24세 (n=76)	25-29세 (n=76)	30-34세 (n=78)	35-39세 (n=74)	Total	N(%) χ^2
피부관리						
지식습득경로						
TV,인터넷	28(38.4)	23(30.7)	19(25.3)	17(23.9)	87(29.6)	10.634
신문,잡지	11(15.1)	13(17.3)	15(20.0)	9(12.7)	48(16.3)	
친구,이웃	23(31.5)	22(29.3)	32(42.7)	30(42.3)	107(36.4)	
미용실,병원	11(15.1)	17(22.7)	9(12.0)	15(21.1)	52(17.7)	
세안방법						
찬물	39(54.2)	21(27.6)	11(14.3)	9(12.3)	80(26.8)	51.870
미지근한물	18(25.0)	41(53.9)	46(59.7)	46(63.0)	151(50.7)	(***)
따뜻한물	12(16.7)	12(15.8)	20(26.0)	18(24.7)	62(20.8)	
뜨거운물	3(4.1)	2(2.7)	0(0.0)	0(0.0)	5(1.7)	
전문피부관리실						
이용빈도						
주1회이상	5(6.6)	1(1.3)	3(3.9)	8(10.8)	17(5.6)	25.172
월2~3회	6(7.9)	10(13.2)	5(6.5)	4(5.4)	25(8.3)	
월1회	5(6.6)	10(13.2)	6(7.8)	10(13.5)	31(10.2)	
생각날때가끔	16(21.1)	19(25.0)	7(9.1)	8(10.8)	50(16.5)	
전혀이용안함	44(57.9)	36(47.4)	56(72.7)	44(59.5)	180(59.4)	
방문안하는이유						
경제적여유	31(53.4)	16(29.6)	29(47.5)	15(27.8)	91(40.1)	19.365
집에서관리	8(13.8)	9(16.7)	6(9.8)	6(11.1)	29(12.8)	(*)
시간적여유	13(22.4)	27(50.0)	22(36.1)	30(55.6)	92(40.5)	
기타	6(10.4)	2(3.7)	4(6.6)	3(5.6)	15(6.6)	
피부관리를위한						
평상시태도						
전혀신경안쓴다	8(9.1)	4(3.4)	6(5.6)	14(12.4)	32(7.5)	26.061
화장품사용	51(58.0)	57(49.1)	67(62.0)	50(44.2)	225(52.9)	
스트레스관리	2(2.3)	11(9.5)	7(6.5)	15(13.3)	35(8.2)	
전문피부관리실	18(20.4)	27(23.3)	14(13.0)	22(19.5)	81(19.1)	
음식물섭취	4(4.5)	12(10.4)	11(10.2)	8(7.1)	35(8.2)	
기타	5(5.7)	5(4.3)	3(2.7)	4(3.5)	17(4.0)	

*** p<0.001 * p<0.05

연령별 피부 관리태도에서는 표 16에서와 같이 세안방법에서 ‘미지근한 물’의 사용이 20-24세는 25.0%(18명), 25-29세는 53.9%(41명), 30-34세는 59.7%(46명), 34-39세는 63.0%(46명)로 연령이 높은 군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피부 관리실을 이용할 경우 전문 피부 관리실 이용 회수를 묻는 항목에서는 20대와 30대 전체 연령군 59.4%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20대와 30대의 연령대는 피부 관리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0-35세는 72.7%가 피부 관리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피부 관리실을 방문 안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20-24세는 53.4%(31명), 25-29세는 29.6%(16명), 30-34세는 47.5%(29명), 35-39세는 27.8%(15명)로 나타났고 ‘시간적 여유’가 20-24세는 22.4%(13명), 25-29세는 50.0%(27명), 30-34세는 36.1%(22명), 35-39세는 55.6%(30명)로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따라서 20대와 30대 연령은 피부 관리를 전문 피부 관리실의 이용보다는 ‘화장품을 사용 한다’는 의견이 전체 연령군 52.9%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고찰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별 피부유형이 20-24세는 지성피부가 30.3%, 25-29세는 복합성피부가 40.8%, 30-34세는 건성피부가 34.6%, 35-39세는 건성피부가 55.4%로 나타나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피부건강상태에서는 탄력저하피부는 20-24세가 19.7%, 25-29세가 38.2%, 30-34세가 50.0%, 35-39세가 59.5%로 연령이 높은 군이 탄력저하피부가 많은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색소침착피부상태를 살펴보면 '색소침착피부'가 20-24세는 47.4%, 25-29세는 48.7%, 30-34세는 61.5%, 35-39세는 68.9%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연령이 높은 군이 색소침착피부가 많은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의 증가가 건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의 수분보유능력과 피지분비량이 저하되어 피부의 유분,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기 쉬워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³²⁾³³⁾.

20대 전후의 여성들이 과다한 피지분비에 의한 각질과 모공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20대 후반부터는 피부가 건성으로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피부건조·탄력저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30대 이후 후반부터는 피부노화의 징후인 잔주름과 탄력저하, 기미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⁴⁾³⁵⁾³⁶⁾.는 선행논문과 일치하나 본 연구에 의하면 20·30대 연령별로 여러 피부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선행논문과의 새

32) 최정숙, 곽형심,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관리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3(1), 1997, P.241-258

33) 정민경, 일부지역 중년여성의 피부관리에 관한 지식과 관리실태, 대구한의과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206-208

34) 현정화, 여성의 피부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인식·분석,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4, p.44-45

35) 화장품신문, 1999.5, p.4

36) 유정숙 김근순, 건조피부를 위한 목욕법이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998, p.778-786

로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색소침착 부위가 광대뼈 주변으로 많이 생성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미가 생성된다는 것은 선행논문³⁷⁾³⁸⁾과 본 연구결과와의 일치된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30대인 경우 20대인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0.6배 낮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2.7배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선행논문에서 흡연이 여드름과 잡티를 유발시키는 요인³⁹⁾⁴⁰⁾이라는 점과 일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의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2.3배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는 선행논문에서 단음식 섭취와 여드름과의 관계에서는 여드름이 있는 사람은 당질 섭취 즉,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의 섭취와 관련성이 있다⁴¹⁾라는 이론적인 지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색소침착과의 관련성에서는 자외선을 3시간 이상 받는 경우 3시간 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색소침착 발생률이 약 1.4배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논문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자주 사용하거나 꼭 사용하는 경우 기미 발생률이 0.4배 나타남으로써 자외선차단제가 기미발생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한다는⁴²⁾⁴³⁾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색소침착피부에서의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이 일치한

37) 구상완,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인체 피부의 노화현상 및 P53표현성,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7, pp.48-50

38) 송중원, 안면피부나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pp.550-54

39) 송미숙, 여대생에 있어서의 흡연 양상과 흡연이 영양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p50-56

40) 최윤정, 여대생의 비흡연 경험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경험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p45-47

41) 박보현, 식습관과 피부표면 수분함량 및 피부트리플과의 상관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3-45

42) 김명숙, 기미의 위험요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6, p31

43) 신혜정,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와 그 방지 개선,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40-46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화장품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품질’로 전체 연령군에 48.6%(141명)로化妆품을 구매할 때 피부를 고려한 화장품의 ‘품질’에 구매 포인트를 맞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행논문에서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품질이며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품질로 다른 변수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품질변수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⁴⁴⁾⁴⁵⁾.와 일치하는 것으로 화장품 제조 시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품질’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4) 남시현, 화장품의 품질지각 및 브랜드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논문, 2002, p80

45) 한경운, 화장품사용에 따른 피부질환에 관한 연구조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5, p35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피부유형, 피부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연령에 따른 피부상태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올바른 피부관리의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20대와 30대의 피부건강상태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피부관리태도, 화장품사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여성 중 31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5년 8월 16일부터 30일간 피부미용전문인을 통해 피부진단 및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피부유형에 있어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로 20-24세는 지성피부가 30.3%, 25-29세는 복합성피부가 40.8%, 30-34세는 건성피부가 34.6%, 35-39세는 건성피부가 55.4%로 가장 많았다.

피부건강상태에서 예민 피부는 20-24세가 48.7%, 25-29세가 28.9%, 30-34세가 33.3%, 34-39세가 37.5%로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탄력저하피부는 20-24세가 19.7%, 25-29세는 38.2%, 30-34세는 50.0%, 35-39세는 59.5%로 연령이 높은 군이 탄력저하피부가 많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이 낮은 20-24세에서도 탄력저하피부가 19.7%나 있었다.

여드름피부는 20-24세가 59.2%, 25-29세가 53.9%, 30-34세가 43.6%, 35-39세가 36.5%로 연령이 낮은 군이 여드름피부가 많이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드름 피부 74.5%가 여드름 정도 1로서 20·30대의 여드름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 부위는 20-24세와 25-29세는 각각 이마부위가 30.9%와 27.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나타났고 30-34세와 35-39세는 입·턱 주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각각 38.5%와 40.4%로 나타났다.

색소침착피부는 20-24세가 47.4%, 25-29세는 48.7%, 30-34세는 61.5%, 35-39세는 68.9%로 연령이 높은 군이 색소침착이 많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색소침착 부위는 광대뼈 주변이 전체 연령군의 64.4%로 색소침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였다. 색소침착 종류는 기미가 20-24세는 11.1%, 25-29세는 9.7%, 30-34세는 42.2%, 35-39세는 72.4%로 연령이 높은 군이 많이 나타났으며 주근깨는 20-24세가 58.3%, 25-29세가 41.9%, 30-34세가 20.7%, 35-39세가 23.1%로 연령이 낮은 군이 많이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20·30대의 피부건강상태와 생활습관과의 분석에서 예민 피부의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2.0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탄력저하피부의 경우, 연령상 30대가 20대보다 발생률이 약 2.0배 높고 자외선을 3시간 이상 받는 경우 3시간 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1.6배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여드름피부의 경우, 연령상 30대가 20대보다 발생률이 약 0.6배 낮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2.7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는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의 경우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색소침착피부의 경우, 단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좋아하지 않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발생률이 약 1.7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자외선을 3시간 이상 받는 경우는 3시간 미만을 받는 경우보다 색소침착 발생률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연령별 화장품 사용실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연령이 높은 군이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의 매일 사용 비율이 높았다.

팩(마스크)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20-24세는 13.2%, 25-29세는 17.1%, 30-34세는 28.2%, 35-39세는 60.3%로 연령이 높은 군이 팩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딤 클렌징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20-24세는 27.6%, 25-29세는 28.9%, 30-34세는 42.3%, 35-39세는 59.5%로 연령이 높은 군이 팩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령별 피부 관리태도는 세안방법에서 미지근한 물 사용이 20-24

세는 25.0%, 25-29세는 53.9%, 30-34세는 59.7%, 34-39세는 63.0%로 연령이 높은 군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피부관리실 이용 빈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20·30대 전체 연령군 59.4%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20·30대는 피부 관리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30대 연령은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 연령군의 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20·30대의 피부유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유분과 수분함유량이 적어짐과 함께 지성피부보다 건성피부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피부건강상태에서는 예민피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전체연령군의 36.8%를 차지해 각 연령층에 예민피부가 상당 수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력저하피부는 연령이 높은 군이 탄력저하피부가 많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낮은 20대군인 20-24세가 19.7%, 25-29세가 38.2%로 탄력저하피부에 해당되었다,

여드름피부는 연령이 낮은 군이 여드름피부가 많았지만 30대 후반 군에서도 36.5%에 달해 성인기 여드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습관과 피부건강상태의 관련성에서, 예민피부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탄력저하피부는 자외선, 여드름피부는 흡연, 단음식, 색소침착피부는 단음식, 자외선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30대의 화장품사용에 있어서는 연령이 20대인 경우 화장수, 딥클렌징, 팩(마스크)를 선호하며 30대인 경우는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으로 국한하였고 조사대상 인원이 304명으로 표본수가 비교적 적었다. 특히 피부상태분석을 피부미용전문인의 진단에 의존하였으며,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요인과 관련되어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논문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지역선정과 인원확보를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정확한 연구방법을 통해 20대와 30대의 피부상태 분석연구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또한, 20대·30대에 국한되지 않고 40대·50대 이상 연령군간 피부상태 비교·분석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논문>

- 강수경, 중년여성의 안면피부상태와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 강수경외, 에스페덱 서비스 기관 이용 고객의 유형조사, 한국미용학회지 8(2), 2002
- 고혜정,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6
- 구상완, 자외선조사에 따른 인체 피부의 노화현상 및 P53표현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구재희, 여성의 피부관리실태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명숙, 기미의 위험요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6
- 김봉임,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 김수정, 여성의 피부형과 피부분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원 석사논문, 2001
- 김신정외,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27(2), 1997
- 김연진, 중년 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학과 석사논문, 2002
- 김영은,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 제안,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정희외, 여대생들의 피부유형에 따른 식이섭취, 실태조사 및 혈장 생화학적 성분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4(1), 1999
- 남시현, 화장품의 품질지각 및 브랜드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명은진, 20, 30대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박보현, 식습관과 피부표면 수분함량 및 피부트러블과의 상관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송미숙, 여대생에 있어서의 흡연 양상과 흡연이 영양섭취 및 식사습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송중원, 안면피부나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신혜정,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와 그 방지 개선,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양은순, 일반인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석사논문, 2002
- 유정숙외, 건조피부를 위한 목욕법이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998
- 이정란, 여성의 피부건강상태와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장경자, 20대 초반 여성의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정민경, 일부지역 중년여성의 피부관리에 관한 지식과 관리실태, 대구한의과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최윤정, 여대생의 비흡연 경험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경험 태도와 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최은영, 건강증진모델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미용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최정숙외,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관리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3(1), 1997
- 한경운, 화장품사용에 따른 피부질환에 관한 연구조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5
- 현경화, 여성의 피부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인식·분석,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4

<단행본>

- 김기갑·허순득,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피부미용학, 형설출판사, 2005
김기연외, 피부관리학 I, 수문사, 1999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2
김병우, 화장품학, 유신문화사, 1998
김유정,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2
야스다토시아끼, 피부관리학, 1995
하병조, 화장품학, 1999

<외국문헌>

- Draelos ZD, “New development in cosmetics and skin care products” , advances in Dermatology 12, 1997.
Dion KK “Berscheid E, Walster E, “What is Beautiful is good”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1972.
Draelos ZD, “Cosmetics, skin care products, and the dermatologic surgeon. Postsurgical selection of cleansing products” , Dermatologic Sugery 24(5), 1998.
Graham JA, Jouhar AJ, “Cosmetic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physical attractiveness” , International Journal Cometic Science 2, 1980.
Nelson LV, “Super skin” , Potter clarkson N.Y, 1988
Paddy CT, “After the Bonze Age” , L.A.Times June, 1989
Van de Ven AH, Ferry DL,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 New York, 1980.

<기타>

- 화장품신문, 1999.5, p4
www.milakorea.co.kr, 2005, Milakorea co. kr. LTD, Skin chech-up.

< 부 록 1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이은영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자가 20·30대 여성의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동의하시면 질문에 성의 있는 응답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본 연구가 끝나면 설문지는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 8. 1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 이 은 영

※ 다음 문항에서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세)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2. 가계 월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단위:만원)

①150미만() ②150-250미만() ③250-350미만()

④350-450미만() ⑤450이상()

3. 결혼상태는?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또는 사별()

4.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이상()

5. 직업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학생() ②관리사무직() ③전업주부()

④전문직() ⑤판매서비스직() ⑥기타()

6. 자녀는 있으십니까?

①없음() ②1명() ③2명() ④3명이상()

II. 다음은 귀하의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습관은 어떠합니까?

1회시 - 맥주 4잔(1병)/ 소주 3잔(반병)/ 와인 3잔 / 위스키 3잔

- ①마시지 않는다() ②주 1회 미만() ③주 1-2회()
④주 3회 이상()

2. 흡연습관은 어떠합니까?

- ①피우지 않는다() ②하루 1-10개피미만()
③하루 10개피이상()

3. 운동습관은 어떠합니까?

- ①안한다()
②한다(규칙적 운동: 1주일에 3번 이상/1회 30분이상일 경우)()

4.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 ①스트레스가 없는 편이다() ②가끔·약간 받는다()
③스트레스를 웬만큼 받는다() ④자주 상당히 많이 받는다()

5. 기상과 취침시간이 규칙적입니까?

- ①규칙적이다() ②보통이다() ③불규칙적이다()

6.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 ①좋아한다() ②보통이다() ③좋아하지 않는다()

7.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 ①좋아한다() ②보통이다() ③좋아하지 않는다()

8. 귀하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 ①좋아한다() ②보통이다() ③좋아하지 않는다()

9. 자외선은 하루 중 얼마나 받는 편입니까?

- ①1-3시간미만() ②3-6시간미만() ③6시간이상()

III. 다음은 귀하의 화장품사용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가 상담 하에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 고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주름개선, 미백, 지방분해 제품)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사용 한다()
3. 평소화장품의 사용은?
①외국 특정회사의 제품만 쓴다() ②이것, 저것 섞어서 쓴다()
③국내특정회사 제품을 선택한다()
4. 본인이 주로 쓰고 있는 화장품의 구입처는?
①백화점() ②전문피부관리실() ③인터넷() ④화장품전문점()
⑤방문판매() ⑥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원()
5. 화장품 구매 시 고려하는 점은?
①제품의 질() ②제품의 가격() ③브랜드 이미지()
④주위의 권유() ⑤제품의 케이스나 향()
6. 세안 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십니까?
①비누() ②폼 클렌징()
③폼 클렌징과 클렌징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2중 세안을 한다()
7. 화장수는 사용하십니까?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매일 사용한다()
8. 에센스는 사용하십니까?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매일 사용한다()

9. 영양크림은 사용하십니까?

-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매일 사용한다()

10. 아이크림은 사용하십니까?

-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매일 사용한다()

11. 팩(마스크)를 사용하십니까?(가정에서)

-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규칙적으로 사용한다()

12.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십니까?

- ①사용안함()
②특별히 햇빛을 많이 받을 때만 사용(바캉스, 운동 등)()
③봄, 여름에만 사용() ④사계절사용()

13. Body관련 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매일 사용한다()

14. 덩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십니까?(각질제거용)

- ①사용하지 않는다() ②가끔 사용한다() ③규칙적으로 사용한다()

IV.다음은 귀하의 피부관리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부관리 지식은 주로 무엇을 통하여 얻습니까?

- ①TV, 인터넷, 라디오() ②신문, 잡지() ③친구나 이웃()
④미용실, 피부관리실, 피부과 등 병원()

2. 세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 ①찬물(10-15℃)() ②미근지한 물(15-21℃)()

③따뜻한 물(21-37℃)() ④뜨거운 물(37℃이상)()

3. 전문피부관리실의 이용 빈도(횟수)는?

- ①주 1회 이상() ②월 2-3회() ③월 1회()
④생각날 때 가끔() ⑤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4. 전문피부관리실을 방문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전문피부관리실 이용자는 표기하지 마세요)

- ①경제적 여유가 없다() ②집에서의 관리로 충분하다()
③시간적 여유가 없다() ④기타()

5. 피부관리를 위한 평상시 태도는?(복합항목선택가능)

- ①전혀 신경 안쓴다() ②화장품을 바른다()
③스트레스 관리를 한다() ④전문피부관리실을 이용한다()
⑤음식물섭취를 신경쓴다() ⑥기타()

<부록 2>

피부 진단 프로그램

(아래 모든 문항은 피부미용전문인의 촉진·견진으로 실시)

※ 피부유형

1. 다음은 귀하의 기본피부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부 유분함유량은 ?

- ①피부표면이 항상 건조하며 윤기가 없다()
- ②피부표면이 적당히 윤기가 있다()
- ③피부의 번들거림이 심하다()
- ④이마나 턱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유난히 번질거린다()

2) 피부 수분보유량은?

- ①당긴다()
- ②당기지 않고 적절한 편이다()
- ③전혀 당긴 적이 없다()
- ④부분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있다()

3) 피부결의 상태는?

- ①피부결이 섬세하나 거칠어 보인다()
- ②피부결이 섬세하고 매끈하다()
- ③피부결이 거칠고 섬세하지 않다()
- ④이마와 볼의 피부상태가 차이가 심하다()

4) 화장의 지속도는?

- ①화장이 잘 받지 않고 발라도 들떠 보이거나 화장이 금방 스며 들어버린다()
- ②화장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곱게 지속된다()
- ③화장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쉽게 지워진다()
- ④이마, 코 부위만 쉽게 지워진다()

5) 피부 두께는 ?

- ①얇다()
- ②적당한 편이다()
- ③두텁다()
- ④볼부위는 얇고 이마부위는 두텁다()

6) 피부 모공의 크기는 ?

- ①작다()
- ②적당한 편이다()
- ③눈에 띄게 크다()
- ④코와 이마 또는 볼 부위가 유난히 크다()

7) 피부 트러블은 ?

- ①여드름 등의 뾰루지는 잘 안 생기며 잔주름이 잘 생긴다()
- ②여드름 등의 뾰루지, 잔주름이 모두 생기지 않는다()
- ③여드름이 전반적으로 잘 나는 편이다()
- ④여드름이 이마나 턱 부위 등 특정부위에만 난다()

8) 종합적 피부유형은?

※ 피부건강상태

2. 다음은 귀하의 피부건강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민 상태를 측정하는 각 문항 중 1개씩 선택하세요.

(1) 볼 부위의 피부상태는?

- ①붉지도 않고 싹뿔줄이 보이지 않는다()
- ②붉거나 싹뿔줄이 보인다()

(2) 화장품을 바꾸었을 때 피부상태는?

- ①뽀루지 등 트러블 걱정이 없는 편이다()
- ②뽀루지 등 트러블이 잘 생긴다()

(3) 문지르거나 계절과 온도의 영향에 대한 피부상태는?

- ①피부가 잘 붉어지지 않는 편이다()
- ②피부가 쉽게 화끈거리거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

(4) 예민 상태는?

2) 탄력 상태를 측정하는 각 문항 중 1개씩 선택하세요.

(1) 손가락으로 뺨 중앙 부위를 집어 올렸을 시 피부상태는?

- ①집어 올렸을 때 잡히지 않거나, 손가락을 놓았을 때 빨리 회복된다()
- ②쉽게 잘 잡히거나 손가락을 놓았을 때 회복이 빠르지 않다()

(2) 피부의 주름 상태는?

- ①웃을 때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찾기 힘들다()
- ②웃을 때 눈가주름이 쉽게 잡히거나 눈가에 주름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3) 이마나 입가의 주름 상태는?

- ①육안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 ②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4) 탄력상태는?

1) 여드름 상태를 측정하는 각 문항 중 1개씩 선택하세요.

(단 2), 3)문항은 1)의 문항에 해당되는 분만 표기하세요)

(1)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편입니까?

- ①안 나는 편이다()
- ②나는 편이다()

(2) 피부에 여드름이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면포 : 여드름의 초기적 증상으로 블랙·화이트헤드를 일컫기도 함
구진 : 크기가 보통 1cm미만이고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
농포 : 붉은 구진성 여드름이 악화되어 누런 여드름 덩어리가 피부를 붉은색으로 싸인 노란색 고름 속에 약간 올라와 보이고 발진을 보이는 염증성여드름
결절 : 농포성 여드름 보다 발전하여 보다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피부 깊숙이 형성되면서 피부 표면에 돌출되거나 딱딱한 응어리를 형성하는 여드름
낭종 : 여드름 중 화농상태가 가장 크고 깊으며 통증이 심하며 흉터를 남기기 쉬운 여드름

- ①정도1 : 얼굴의 반쪽에 1-10개 정도의 면포,구진,농포의 발생()
- ②정도2 : 얼굴의 반쪽에 11-20개 정도의 면포,구진,농포의 발생()
- ③정도3 : 얼굴의 반쪽에 21-30개 정도의 면포,구진,농포의 발생()
- ④정도4 : 얼굴의 반쪽에 31개의 이상의 면포,구진,농포의 발생()

(3) 피부에 여드름이 있다면 주로 어느 부위에 발생합니까?

(복합 항목 표기 가능)

- ①이마() ②뺨() ③코주위() ④입, 턱주위()
④목, 가슴 및 등() ⑤얼굴전체() ⑥기타()

2) 색소침착 상태를 측정하는 각 문항 중 1개씩 선택하세요.

(단 2, 3)문항은 1)의 문항에 해당되는 분만 표기하세요)

(1)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습니까?

- ①눈에 띄게 있다() ②눈에 띄게 있지는 않다()

(2)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다면 주로 어느 부위입니까?

- ①얼굴전면() ②광대뼈 주변() ③볼() ④기타()

(3)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다면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 ①기미() ②주근깨() ③여드름자국()

ABSTRACT

The analysis of skin condi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a study on their attitudes toward skin care

Lee, Eun young
Major in Beauty Aesthetics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With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s the subje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ge-specific skin types and skin health condition,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and problems of their age-specific skin condition, and make them right indexes of age-specific skin care. Also, it analyzed the skin health condi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its relevance to their life habits, understood their attitudes toward skin care and their actual uses of cosmetics, and used them as the basic material for skin health care.

For it, the skin diagnosis and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skin beauty experts for thirty days from Aug. 16 2005 on by selecting 314 randomly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living in Seoul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types of ski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oily skin accounting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30.3% in women between 20 and 24, complex skin 40.8% in women between 25 and 29, dry skin 34.6%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dry skin 55.4% in women between 35 and 39.

In skin health condi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sharp skin accounting for 48.7% in women between 20 and 24, 28.9% in women between 25 and 29, 33.3%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37.5% in women between 34 and 39.

For the skin with low elasticit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percentages of 19.7% in women between 20 and 24, 38.2% in women between 25 and 29, 50.0%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59.5%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much occurrence in higher age groups and with as high an incidence as 19.7% in the lowest age group.

For the pimpled ski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percentages of 59.2% in women between 20 and 24, 53.9% in women between 25 and 29, 43.6%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36.5%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a high incidence in lower age groups. The pimpled skin accounting for 74.5% in the pimple degree of 1 showed a mild symptom of pimple for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For pimpled parts, the forehead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s such as 30.9% and 27.1% in women between 20 and 24 and in women between 25 and 29, respectively, whereas the areas around the mouth and the chin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s such as 38.5% and 40.4%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in women between 35 and 39, respectively.

For the skin with pigmenta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percentages of 47.4% in women between 20 and 24, 48.7% in women between 25 and 29, 61.5%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68.9%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a high incidence in higher age groups. For parts with pigmentation, the area around a cheekbone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64.4% in all age groups. For the kinds of pigmenta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percentages of birthmark such as 11.1% in women between 20 and 24, 9.7% in women between 25 and 29, 42.2%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72.4%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a high incidence in higher age groups and in the percentages of freckle such as 58.3% in women between 20 and 24, 41.9% in women between 25 and 29, 20.7%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23.1%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a high incidence in lower age groups.

Secondly, analyzing the skin health condi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its relevance to their life habits through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harp skin of a smoker had approximately 2.0 times as high an incidence as that of a nonsmoker,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or the skin with low elasticity, women in their thirties had approximately 2.0 times as high an incidence as those in their twenties, whereas women receiving UV for three hours or more had approximately 1.6 times as high an incidence as those doing that for less than three hour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imples on the skin, women in their thirties had approximately 0.6 times as low an incidence as those in their twenties, while a smoker had approximately 2.7 times as high an incidence as a nonsmoker,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ose who liked sweets had approximately 2.3 times as high an incidence of pimple as those who did not like them or who liked them on average, whos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For the skin with pigmentation, those who liked sweets had approximately 1.7 times as high an incidence as those who did not like them or who liked them on averag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women receiving UV for three hours or more had approximately 1.4 times as high an incidence of pigmentation as those doing that for less than three hours, whos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Thirdly, for actual use of cosmetics on an age-by-age ba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s shown in higher age groups with a high ratio of using essence, moisture cream and eye cream every day.

In the use of pack (mask),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no use' percentages of 13.2% in women between 20 and 24, 17.1% in women between 25 and 29, 28.2%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60.3%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higher age groups with a high ratio of not using it.

In the use of dip cleansing,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no use' percentages of 27.6% in women between 20 and 24, 28.9% in women between 25 and 29, 42.3%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59.5%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higher age groups with a high ratio of not using it.

Fourthly, for an attitude toward skin care on an age-by-age ba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ge groups as shown in the 'use of tepid water washing a face' percentages of 25.0% in women between 20 and 24, 53.9% in women between 25 and 29, 59.7% in women between 30 and 34, and 63.0% in women between 35 and 39 especially with higher age groups with a high ratio of using it.

In the item for questioning the frequency of using a professional skin care institute, no use by 59.4% of the whole age groups showed that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hardly used the institute. Also, the analysis was made that the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ho used cosmetics for skin care accounted for 52.9% in the whole age groups.

This study revealed that in the type of skin for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ith increased ages, reduced oiliness and wateriness content in skin increased dry skin rather than oily one.

For skin health condition, sharp skin occurring regardless of ages and accounting for 36.8% in the whole age groups showed that it was

considerably distributed in each group. For the skin with low elasticity, higher age groups had a high incidence, while in the lower age group consisting of women in their twenties women between 20 and 24 had an incidence of 19.7% and those between 25 and 29 38.2%.

For the pimples skin, lower age groups showed it much, but the group consisting of women in the latter half of their thirties amounting to 36.5% showed that adulthood had a high incidence of pimple.

The relevance of life habit to skin health condition indicated that sharp skin was related to smoking, the skin with low elasticity UV, the pimples skin smoking and sweets, and the skin with pigmentation sweets and UV.

The survey of use of cosmetics by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revealed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preferred tonic water, dip cleansing, pack(mask) and that those in their thirties preferred essence, moisture cream and eye cream.